

[CES 2020 D-2]
5G 먹거리 구상
이통 3사 수장
글로벌 행보
03



Economy

→ 코스피	→ 코스닥
2176.46 (0.00)	669.93 (0.00)
↓ 금리 (미국 3년)	↑ 환율 (원-달러)
1.27 (-0.06)	1167.10 (+9.00) (3일)

현대차, 美 LA서 카셰어링 사업 시동 1시간 주행시 12달러 모션랩, 우버와 맞짱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 도약 실증 법인 설립... 혁신 검증 나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미래 모빌리티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에서 친환경차를 앞세워 세계 최대 모빌리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2020년 시무식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내 미래 모빌리티 사업 실증을 위해 '모션랩'을 설립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LA 시내 중심가(다운타운)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에서 만난 정현택 현대차그룹 전략기술본부 모빌리티사업실장(상무)은 "2025년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제조기업을 넘어 고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시장환경 등 여건이 성숙된 미국 LA에 실증사업 법인인 '모션랩'을 설립했다"며 "최근 시작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혁신 모빌리티 사업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A는 현대차그룹이 선택한 세계 최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실험실

현대차그룹이 미국 LA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며 2028 올림픽 앞두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현택 상무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시 중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시인 LA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필요

성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LA는 뉴욕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인근 지역의 위성 도시들까지 합치면 약 10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또 2014년 미국 브루스킹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8604억 달러의 GDP(국내총생산)를 발생시키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기도 하다.

그러나 LA의 교통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연간 24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과밀화된 교통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배출가스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해지고 있다.

LA시는 202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심각한 교통 문제 해결 등 성공적인 대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2025 비전 제로' 계획을 선언했다. 2025년까지 ▲내연기관 제로 ▲교통사고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4면에 계속>**

/로스 앤젤레스(미국) =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CES 2020'서 LG 씽큐 광고

LG전자가 오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LG 씽큐(ThinQ) 광고판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관련기사 3, 8면> /연합뉴스

“금융업 빅데이터 전문인력 확보가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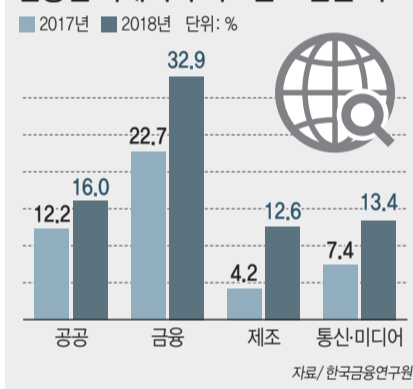
전체 업종 중 도입률 33% '최상' 빅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목소리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되고 오픈뱅킹이 시행되는 등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환경이 개선되면서 금융회사 또한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5일 발표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분기 기준 금융업의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은 32.9%를 기록해 전체 업종(평균 10%)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 '최상'**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금융계의 관심도 크다.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추진 계획 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고도화' 사업은 16%

업종별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률 비교



를 차지했다.

신용정보법·오픈뱅킹 등 제도 변화에 따라 각 금융사들의 빅데이터 활용은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사들은 가명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마찬가지로 가명정보가 통계작성 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12월 18일 전면 시행된 오픈뱅킹으로 은행들이 타행계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목표 고객 추출·상품추천모델 개발 등을 위한 데이터 축적도 가능해졌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도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현재 대다수 금융회사는 데이터 기반 경영을 최대 목표로 삼고, 대용량 데이터의 생산·처리·저장·분석 과정을 효율화하는 인프라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 인력·이종산업간 융합이 과제** 연구소는 금융사의 원활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전문 인력 확보 ▲정보간 결합 활성화 ▲오픈 API 기능 명확화 등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면에 계속>**

/홍민영 기자 hong93@

내일의 솔루션은 기술에 있습니다.

77억명 모두 고갈 걱정없는 무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에 인체에도 환경에도 무해한 친환경 화학 기술을 더하고 미래 첨단소재의 기술까지 더한다면 내일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더 많은 솔루션들이 찾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화케미칼, 한화규셀, 한화첨단소재가 기술로 시대의 문제를 풀어낼 한화솔루션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은 한화케미칼, 한화규셀, 한화첨단소재가 만나 탄생한 새로운 회사의 이름입니다.

배달·후충전·날씨관측까지... 편의점 플랫폼의 진화

CU 배달 서비스 점포 3000곳
1분기 안에 5000곳까지 확대

GS25 예약·조회 '택배앱' 출시
전동킥보드 충전·주차공간 마련

세븐일레븐 기상관측장비 설치
앱 연동 관측정보 편리하게 확인



부릉라이더가 CU매장에서 요기요를 통해 접수된 주문 상품의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BGF리테일



GS25 편의점 앞에서 모델이 전동킥보드 라임을 타고 있다. /GS리테일



고객이 세븐일레븐에서 '경량패딩조끼'를 구매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과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쇼핑 공간에 지나지 않았던 편의점이 거대 생활 플랫폼으로 거듭 변신하고 있다. 택배·배달, 전기차 충전소, 날씨 관측까지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편세권'(편의점 근처가 살기 좋다)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이다.

◆**배송·택배 서비스 신성장동력으로!**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CU는 현재 배달 서비스 운영점이 3000 곳으로 늘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배달 플랫폼 요기요, 부릉과 제휴해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배달 앱을 통해 오전 11시~밤 11시에 배송 가능한 간편 식품·생활용품 등을 주문하면, 반경 1.5km 이내 씨유 점포에서 물건을 보내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씨유는 올해 1분기 안에 배달 가능 점포를 50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일부 점포에서는 24시간 운영도 준비 중이다.

GS25, 이마트24도 각각 요기요와 제휴를 맺고 편의점 물품 배송 서비스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GS25는 서울 강남권 직영점 10곳에서 350여개 상품을 배달하고 있다.

여기에 GS25는 택배 전용 애플리케이션 'GS택배앱'을 출시했다. GS25는 전국 1만3000여 개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는 데 유용한 앱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택배 예약, 실시간 배송조회, 편의점 위치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택배 예약은 앱에서 배송지 주소 등을 미리 입력하며, 점포에선 택배 무게만 측정하면 된다. 택배를 보내는 데 드

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GS25 측은 "고객이 편의점 택배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기능을 연계한 것"이라며 "소매점 기능을 넘어 다양한 생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송이 유통업계의 화두가 되면서 편의점도 배달 서비스에 뛰어들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주차·충전·모빌리티 플랫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활용한 모빌리티 플랫폼도 각광받고 있다. GS25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포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거나 점포 밖 전용 공간

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킥보드 이용을 위해 편의점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이를 도입한 점포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약 18% 증가했다. CU는 차량공유 업체 '쏘카' 등과 손잡고 공유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로 대학가나 원룸 인근 점포에 'CU쏘카존'을 도입했으며, 이곳에서 이뤄지는 공유차 대여율은 기존 '쏘카존'보다 20~30% 더 높다.

◆**'오늘 날씨 어때?'**

세븐일레븐은 동네 기상관측소를 자체하고 나섰다. 올해 전국 3000여점포에 초미세먼지 등 다양한 날씨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설치되는 장비는 초미세먼지, 기온, 습도, 강수 유무 등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가로 10cm, 높이 13cm의 소형장비로 설치하는 것도 간단하다. 기상정보 활용시스템도 개발해 각 점포의 기상관측장비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세븐일레븐 모바일 앱인 '세븐앱'과 연동시켜 관측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기상 빅데이터 전문기업 옴저버는 실시간 기상정보 앱을 내년까지 개발해 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된 세븐일레븐 점포를 중심으로 지역별 기상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다시 안전 자산... 금값 '들쭉'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반영하는 한국거래소의 KRX금시장 거래 가격은 지난 3일 1g당 5만7850원으로 전날보다 1.74% 상승했다. 한 돈(3.75g)으로 따지면 지난 12월 20일 20만8388원 수준이었던 가격이 7거래일 만에 21만6938원으로 올랐다.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이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반영하는 한국거래소의 KRX금시장 거래 가격은 지난 3일 1g당 5만7850원으로 전날보다 1.74% 상승했다. 한 돈(3.75g)으로 따지면 지난 12월 20일 20만8388원 수준이었던 가격이 7거래일 만에 21만6938원으로 올랐다. /연합뉴스

중소 R&D 지원예산 1.5조 투입

중기부, 소부장 자립위해 4천억 증액

올해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에 총 1조4885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이는 특히 역대 최대규모로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해 전년보다 4141억원 늘어난 액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5일 발표한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R&D 통합 공고'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술혁신 307억원, 창업성장 202억원, 상용화 150억원, 지역특화 400억원 등이다. 또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인 AI(155억원), 빅데이터(65억원), 스마트센서(47억원) 등에 총 267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1186억원의 소·부·장 특별회계도 편성했다. 소·부·장 분야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선 R&D를 우대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자립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도 우대한다.

혁신과 도전을 이끌 18개 R&D 사업에 대한 예산 2807억원도 새로 만들어졌다. 투자방식의 R&D도 처음 도입한다. 이는 민간 벤처캐피탈(VC)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선 민간투자, 후 정부매정 투자방식(1:1)으로 운영된다. /김승호 기자 bada@

'4차 산업혁명'을 세계경제 지형변화 주도

韓銀 '글로벌경제 방향 좌우 이슈'를 성장세 완만하게 개선 전망
위험요소에 중장기 낙관 어려워

올해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다양한 위험요소가 잠재하고 있어 중장기 향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둘러싼 주요국 간의 경쟁,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무역질서 등이 세계경제의 지형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방향을 좌우할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5대 글로벌 이슈로 ▲주요국의 4차산업 주도권 경쟁 ▲국제무역질서 재편 ▲글로벌분

업구조(GVC) 내 아세안과 중국의 역할 변화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대응 노력 가속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면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중국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자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가간 무역마찰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주독일 중국대사는

중국내 독일산 자동차의 판매량을 언급하며 독일이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중국 정부도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무역장벽이 확대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 국제무역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무역협정(RTA)을 통해 통상 이슈와 규범을 수립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형성을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 RTA는 기존에 비해 규모가 확대되고 역내 통합수준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90년 45건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난 2006년 202건에 이어 지난해 302건이 발표 중이다. /김희주 기자 hj89@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2000조 돌파

한은, 지난해 3분기 28.8조 늘어

지난해 3분기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판매신용이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판매신용 잔액은 석달 전보다 28조8000억원 늘어난 총 201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가계대출은 13조6000억원 증가한 148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는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가 빌린 가계대출 231조9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12조8000억원 늘어난 438조7000억원이다. 개인사업자대출 차주가 빌린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합치면 16조3000억원 증가한 670조 원이다. 신용카드 빚을 뜻하는 판매신용은 2조4000억원 늘어난 91조1000억원이다. 전체 가계 신용 증가분에서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분이 절반을 넘는 56.6%를 차지한다. /김희주 기자



'5G 먹거리' 구상, 이통3사 수장 글로벌 행보

SKT 박정호 사장 네번째 CES행 5G 모빌리티·미디어기술 등 소개

KT 황창규 회장 CES 대신 이달말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가

LGU+ 하현희 부회장 올해도 CES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속도 구상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지난해 열린 'CES 2019' 전시장 내 SK 관계사 공동 부스에서 전시 아이템을 둘러보고 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오른쪽부터 세 번째)이 지난해 열린 CES서 센트럴 홀에 위치한 인텔 전시장을 방문, BMW 이어 포드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LGU+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이 연초부터 글로벌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미래 먹거리 구상을 위해서다.

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오는 7일부터(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가전 전시회 'CES 2020'을 직접 찾는다. 황창규 KT 회장은 CES 대신 1월 말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국제기구 수장 및 리더들과 자리를 함께 할 방침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의 CES 방문

은 취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박정호 사장은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이완재 SKC 사장 등 SK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들과 함께 CES를 둘러볼 계획이다. 특히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CES에 그룹 공동 전시 부스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SK텔레콤은 CES에서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C와 함께 5G 기반 모빌리티와 미디어 기술·서비스를 선보인다. SK텔레콤은 이 전시를 통해 삼

성전자와 함께 개발한 고화질TV와 차세대 단일 광자 라이다 등 모빌리티 기술을 소개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해 열린 'CES 2019'에서 미국 최대 규모 지상파 방송사 싱클레어 방송 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전장 기어 하만과 싱클레어 방송 그룹과 차량용 플랫폼을 공동 개발 협력에 나서는 등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보인 바 있다.

하현희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임직

원과 함께 CES를 참관하고, 자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구상에 나선다. 하 부회장은 페이스북, 티모바일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을 만나 각사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을 공유하고, 혁신 과제를 논의한다.

LG전자, 삼성전자 등 주요 제조사들과 5G 디바이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빅데이터가 접목된 스마트 서비스도 살펴볼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

해 통신·미디어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전략 책임 'CSO' 산하에 디지털 전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하는 'DX 담당'을 신설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의 수장들이 CES에 발걸음 하는 이유는 신사업 발굴 때문이다. 5G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이동통신 사업도 전통적인 무선 사업에서 벗어나 자율주행차, 미디어 사업 등 다방면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매년 1월 열리는 CES는 5G 통신을 기반으로 자동차, 통신 등 업종을 뛰어넘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글로벌 ICT 기업이 모이는 CES는 글로벌 제휴·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인 셈이다.

오는 3월 임기를 마치는 황창규 KT 회장은 CES에 불참하는 대신 오는 21일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 출장에 나선다. 황 회장의 다보스포럼 출장은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이다. KT 차기 CEO로 예정된 구현도 코스터머&미디어부문 사장은 내부 소통과 사업 구상에 매진할 것을 알려졌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LG전자, 加 인공지능社와 손잡고 AI 새정립

CES서 엘레먼트 AI와 업무협약 체계적 발전위한 공동연구 진행

LG전자가 캐나다의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 엘레먼트 AI와 손잡는다.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목표다.

LG전자와 엘레먼트 AI는 현지시간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 엘레먼트 AI CEO 장 프랑스와 가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엘레먼트 AI는 CEO 장 프랑스와 가네가 딥러닝 분야 세계적인 석학인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교수 겸 밀라연구소 창업자 요슈아 벤지오 등과 함께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다. 금융, 유통, 전자 등 여러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양사는 인공지능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LG전자 트윈타워 빌딩. /뉴시스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양사는 최근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수히 거론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해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양

사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고 고객의 삶에 더 빠르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엘레먼트 AI CEO 장 프랑스와 가네는 "LG전자와 함께 인공지능의 여정을 함께하게 돼 기쁘다"라며 "양사는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로서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술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은 "인공지능이 고객의 삶에 더 높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방향성이 필요하다"라며 "엘레먼트 AI와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의 체계적 발전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일평 사장은 현지시간 6일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에 참석해 장 프랑스와 가네 CEO와 함께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yuni2514@

美 CES에 '서울관' 첫 조성 박원순, 혁신기업들과 동행

유망 혁신기업 20개社와 참가 벤처 캐피탈과 피칭데이 예정

서울시는 오는 7~10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박람회인 'CES 2020'에서 서울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도 국내 20개 기업과 함께 서울시장으로서 처음으로 CES에 참가한다.

서울관은 스타트업 기업과 각국 국가관이 모이는 '유레카 파크'(테크 웨스트)에 290㎡ 규모로 조성된다. 전시실은 ▲국내 20개 혁신기업 부스 ▲비즈니스 미팅공간 ▲디지털 시민시장실 ▲스마트도시 서울 홍보 공간으로 꾸며진다.

기업들은 스마트폰으로 동공을 촬영해 심장 정보를 측정하는 애플 리케이션, 인공지능으로 개성을 가진 음악을 만들어주는 AI 성우 서비스, 모공·주름 등 피부상태를 3D로 측정해 제품을 추천해주는 스마트 거울, 원거리 무선충전 등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이들 기업은 서울창업허브에 입주했거나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지털재단 등 시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이다.

시는 CES 참가기업에 100만원 이내의 항공료와 50만원 이내의 제품 운송비, 현지 통역, 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한다.

8일(현지시간)에는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을 서울관으로 초청해 기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스마트 거울. /서울시

업을 알리는 행사인 피칭데이가 열린다.

시는 서울관과 별도로 스마트시티(테크 이스트)에 '서울라운지' 부스를 만들어 시청의 시장실과 비슷하게 연출하고 대담 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CES에서 최초로 운영하는 서울관은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혁신기업에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며 "서울의 혁신적인 스마트행정을 세계 무대에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데이터 분석, 활용하는 내부체계 조성을"

>> 1면 '금융업 빅데이터'서 계속

서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데이터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데이터 분석 결과가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한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의 결합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고객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므로 이를 분석해 영입에 활용할 수 있는 내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는 금융·통신·유통 등 다양한 분야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이종 정보 간 결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고객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선 복수의 정보집합물 간 결합이 중요하나, 그동안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을 위해 각 정

보집합물에 대한 비식별조치 및 이에 대한 전문가의 적정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부 제휴사와 고객의 정보를 주고받는 인프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이해관계자 간 법적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



지난 4일(현지시간) 센트럴 오피스 다운타운 LA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에서 정현택 현대차그룹 전략기술본부 모빌리티사업실장(상무)이 모션랩의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셔틀 공유 등 다양한 실증사업 진행 국내서도 모빌리티 산업 발전 앞장

>> 1면 '현대차, LA서 미래...'서 계속

이에 LA시는 도시 교통체계 개선 협의체인 '어반 무브먼트 랩스(UML)'를 발족했다. 여기에는 LA시 산하 ▲LA 메트로 ▲LA교통국 등의 기관과 ▲미국 최대 이동통신업체 버라이즌 ▲미국 차량공유전문기업 리프트 ▲구글의 자율주행 전문 기업 웨이모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모션랩 설립을 통해 2020년부터 완성차 업체로는 처음 UML의 카셰어링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현대차그룹과 LA시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철학,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의 방향성 등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미래 모빌리티 법인 '모션랩' 첫 번째 실증사업 '모션 카셰어'

모션랩은 카셰어링 사업뿐 아니라 국내에서 시범적용에 착수한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연계해 최종 목적지까지

LA 유니언 역 등 4개 역서 카셰어링 사용자 위치정보 기반 차량 정보확인 택시 요금에 비해 1/8수준으로 경제적

이용자들의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다중 모빌리티 서비스, 실시간 수요를 반영해 운행 경로상 다수의 목적지를 거칠 수 있는 셔틀 공유, 개인용 항공 이동수단(PAV)·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셰어링 서비스는 현대차그룹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이다. 모션랩은 지난해 11월부터 LA의 '유니언 역'을 비롯한 4개 주요 역에서 모션 카셰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미국 현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모션 카셰어는 이미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카셰어링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사용이 편리하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으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가까운 곳에서 사용 가능한 공유 차량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 등과 비슷한 방식이다.

현재 모션랩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최초 서비스 가입비 12달러를 제외하고, 주행 시간에 따른 사용료(연료비 포함)는 시

간당 12달러이다.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하철·버스 요금은 약 7달러(대기시간 포함 약 2시간 소요), 택시나 우버 요금은 약 60달러 정도여서 가격 측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

2020년 3월부터 1분당 요금제가 적용되면 약 20분간 운행시 비용은 4달러가 전부다. 버스나 지하철 등 전통적 대중교통에 비해 시간은 1/3로 줄이면서도 비용은 비슷하고, 택시 요금에 비해서는 1/8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적이다.

2015년 기준 ▲카투고 ▲잡카 ▲드라이브나우 등 약 16개 카셰어링 업체의 평균 이용료가 등록비 약 25달러, 편도 이용료 11~18달러, 왕복 이용료 약 53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션 카셰어는 높은 비교 우위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션랩의 데이브 캘런 전략담당상무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범운영 개념으로 사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모션랩은 향후 ▲LA 시내 ▲한인타운 ▲힐리우드 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지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왕복 운영 방식에서 프리플로팅 방식으로 운영 형태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특히 차고지 확보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미국 시장서 철수를 선언한 BMW의 드라이브나우와 카투고 등과 차별화를 선언했다. 모션랩은 LA시와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통해 향후 카셰어링 시장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플로팅 방식 운영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미국 내 카셰어링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한국서도 혁신 모빌리티 사업 시동

현대차그룹은 최근 국내에서도 모빌리티 통합 관리 솔루션 기업 '모션'을 설립하고 국내 환경에 맞춰 렌터카 업체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시동을 걸었다.

국내에는 중소 규모의 수많은 렌터카 업체가 차량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규모와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렌터카사들이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과 IoT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현대차그룹은 렌터카사의 운영 지원을 통해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로스 엔젤레스 (미국)·양성운 기자

주유상태·소요시간 확인은 기본 '프리플로팅'으로 자유롭게 주차

〈유동형 편도〉

르포

'모션랩' 카셰어링 서비스

앱으로 지역서 이용가능 차량 확인
3월까지 차량 100대 추가 확보방침
다중 모빌리티 등 차후 사업군 확대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삶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정희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 2017년 CES에 참석해 미래 모빌리티 개발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3년이 지난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 LA에 실증사업 법인인 '모션랩'을 설립하고 최근 시작한 카셰어링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환경에 맞춰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한 계획도 뚜렷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LA의 중앙역으로 불리는 유니언역 주차장을 방문해 모션랩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체험했다. 모션랩은 현재 유니언역을 비롯해 웨스트레이크와 퍼싱, 7번가-메트로 센터역 등 LA 도심 주요 지하철역 인근 환승 주차장에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환승 주차장을 들어서자 현대차의 아이오닉 PHEV가 반갑게 맞아줬다. 현재 모션랩 앱은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현지 직원의 도움으로 서비스를 실행했다.

이용 방법은 단순했다. 앱을 실행하자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차량마다 주유 상태는 물론 이용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등록 절차를 끝내자 스마트폰으로 차량 잠금



4일(현지시간) 모션랩 직원이 앱을 이용해 차량을 설정하고 있다.

상태를 해지, 시동을 켤 수 있었다.

현재는 왕복 방식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카셰어링 업체들과 차별화를 느낄 수 없었지만 오는 3월부터 프리플로팅 방식(LA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지역에 자유롭게 주차하는 개념)을 도입하면 운영 형태의 다양화는 물론 이용객들의 부담도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국내 카셰어링 서비스 쏘카와 비슷해 보이지만 완벽하게 차별화를 갖고 있다.

차량 운영도 현재 15대(아이오닉 PHEV)에서 오는 3월까지 아이오닉과 니로 HEV를 100대 가량 추가 확보하고 LA 시내는 물론 한인타운, 할리우드까지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후

에도 꾸준히 차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모션랩 관계자는 "LA시는 물론 북미 다른 지역에서도 협업을 진행하지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 형태를 분석한 다음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모션랩은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로보택시, 셔틀공유, 다중 모빌리티(대중교통과 카셰어링을 결합해 사용자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플랫폼)는 물론, 비행자동차를 활용한 도심 항공모빌리티(UAM)까지 사업군을 점차 넓힐 방침이다.

/로스 엔젤레스 (미국)·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I, 초등부터 성인까지 단계별로 맞춤 교육"

교육부 상반기 'AI 교육 기본계획' 신설 AI 시대 기본 소양·윤리·가치관 마련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정부가 처음으로 초등학교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AI 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반기 중 만듭기로 했다.

AI 활용 교육 확대가 예고되면서 AI 인재 공급과 수요 균형 맞추거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이 과제도 떠오르고 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 'AI 교육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AI를 어떻게 가르칠지를 담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I 교육 기본계획에는 초등학교생부터 성인 대상 평생교육까지 교육단계별로 어떤 AI 교육을 할지 등의 중장기 비전이 담길 예정이다.

초등학교에서는 AI와 친숙해지는 데 교육의 주안점을 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AI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하며, 대학에서는 AI 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잘 활용하도록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의 AI 교육 기본계획은 이러한 국가전략의 연장선상에서 AI 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계획은 물론 AI 시대를 살아갈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과 윤리·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대학원에 'AI 융합 교육과정'을 개설해 2024년까지 AI 전문교사 5000명을 양성하고, 'AI 융합과정 운영 고교'도 34곳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 AI 전문교사 양성 인원에 자체 인원을 더해 5년간 800~1000명 양성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적어도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초등학교 6곳에서는 AI를 활용한 영어연습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성화고 10곳은 'AI고'나 '빅데이터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AI 교육과 인재 양성이 활발해지면 AI 인재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과 개인정보침해 문제 등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AI고'나 '빅데이터고'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AI 인재 등을 고교단계에서 키워내기 힘들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AI 활용 교육에 따른 학생의 정보가 빅데이터 형태로 축적되면서 학생의 목소리나 학습 정보 등 개인정보침해 가능성도 나온다.

/한용수 기자 hys@

금융사 경영전략 워크숍

‘일류신한’의 키워드는 R 지속가능한 ESG경영 공유

(Resilience·회복탄력성)

(환경·사회·지배구조)

신한금융 고객중심 원신한 체계강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일류(一流)신한’ 도전을 위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조했다.

신한금융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기흥 신한은행연수원에서 조 회장을 비롯한 전 그룹사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 및 임원, 본부장 등 총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신한경영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20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첫 영업일에 신한 리더들과 함께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경영포럼을 개최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경영포럼이 일류신한을 향한 원대한 여정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무엇이 일류를 만드는가?’라는 키워드로 진행됐다. 먼저 조 회장이 ‘일류를 말하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고, ‘일류 기업의 조건’을 주제로 한 외부 전문가 강연과 올해 경영환경 및 그룹의 전략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예술·과학·비즈니스·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여러 분야의 테마 강연과 토의를 통해 일류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는 시간과 2020년 그룹의 7대 전략 과제에 대해 조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회장은 올해 두 가지 큰 도전으로 ‘2020 스마트(SMART)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와 ‘일류신한’을 제시했다.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그룹의 전략 방향성은 ‘F.R.E.S.H 2020’이라고 정의했다.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탄탄한 기초체력(Fundamental) ▲축적된 성공의 힘으로 조직의 혁신을 추진하는 회복 탄력성(Resilienc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2일 경기도 신한은행연수원에서 열린 ‘2020년 신한경영포럼’에서 ‘일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e) ▲핀테크, 생활 플랫폼을 아우르는 신한이 주도하는 디지털 생태계 구현(Eco-system) ▲고객,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와 상생하는 책임있는 기업시민(Sustainability)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융·복합형 인재 확보(Human-talent) 등을 말한다.

조 회장은 5개의 키워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R(회복탄력성)을 꼽았다. 그는 “조직 관점에서 회복탄력성은 역경 속에서 핵심 역량을 재창조해 재도약을 이뤄내는 힘”이라며 “전략적 복원력을 높인 기업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새로운 역량을 지닌 기업으로 재탄생한다”고 강조했다.

일류신한으로 도약하기 위한 7가지 전략과제로는 ▲고객중심 원신한(One Shinhan) 체계 강화 ▲시장선도 비즈니스 모델 확대 ▲고도화된 글로벌 성장 전략 추진 ▲혁신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치창출 지속가능·혁신금융 본격화 ▲변화대응 리스크관리 역량 차별화 ▲일류지향 신한가치 확립 등을 제시했다.

/안상미 기자

KB금융 “모든 경영진 같은 곳 바라봐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했다.

KB금융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KB증권 용인연수원에서 윤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ESG 기반의 KB금융 전략 방향성에 대해 공유하고, 최고경영자(CEO)와 12개 계열사 대표이사 모두가 ‘ESG경영 선도 금융그룹’이 될 것을 다짐했다.

‘2020년 금융업 전망’ 및 ‘시장에서 바라보는 KB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의 외부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도 지난 경영 성과를 되돌아보며 2020년 경영전략에 대해 인사이트(통찰력)를 얻고,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디지털·IT, 리더십 등에 대해 강연과 함께 각 주제별로 경영진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는 포럼도 진행됐다. 2020년 그룹 경영전략방향의 실행 방안 도출을 위한 사업 부문별 심층 토의시간도 진행됐다.

▲디지털 ▲자산관리(WM) ▲기업투자금융(CIB) ▲글로벌 ▲자본시장 ▲개인고객 ▲중소기업(SME) ▲보험 등 총 8개 사업 부문별 임도의를 통해 각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또 전체 경영진이 각 실

현을 대표하여 “모든 경영진 같은 곳 바라봐야”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KB금융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3일 경기도 KB증권 용인연수원에서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다. /KB금융

행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치열한 피드백 과정으로 이어졌다.

윤 회장은 “ESG 기반의 경영체계를 신속히 체계화하고, 더욱 확산하자”며 “지속가능 경영을 선도하는 모범 금융그룹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0년 경영전략방향인 ‘L.E.A.D 2020(Level up the core, Expansion, Active&creative KB, Digital innovation)’을 업무 추진시 항상 생각하고, 모든 경영진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도약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KB금융 관계자는 “중점 추진 사업별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경영진이 다함께 논의하는 집단지성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어 더욱 의미 깊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주택연금 55세부터 #구직청년 저금리대출

‘대전하나시티즌’ 창단... 글로벌 구단 꿈꾼다

금감원 Q&A

올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Q. 매년 많은 금융제도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내용들이 너무 방대해 챙겨보거나 활용하기가 쉽지 않네요. 2020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가운데 저 같은 평범한 금융소비자가 기억해두면 좋을 내용 위주로 콕콕 짚어주세요.

A. 먼저 든든한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사항입니다.

일단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집니다. 올해 1분기부터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작년까지 60세 이상만 가능)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늘어납니다. 작년까지는 연간 연금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그 한도가 최대 6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50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또 자영업자, 청년 등 서민들을 위한 금융제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채무에 대해 초기 2년간은 상환을 유예하고, 최장 10



년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일정 심사를 거쳐 재창업자금과 관련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대학생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올해 1월 중 최저 3.6%, 1200만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분기부터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무료로 채무대리인, 소송 변호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김희주 기자 hj89@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대전, 축구 명성 되찾길” 황선홍 신임 감독 소개, 구단기 전달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시민들과 함께 새롭게 태어날 프로축구 구단 ‘대전하나시티즌’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창단식을 개최했다.

대전하나시티즌은 국내 리그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대전 시민과 선수들, 관객이 하나돼 모두의 기쁨을 통해 함께 성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대전시에 위치한 충무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창단식에는 대전하나시티즌 구단주인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 CEO, 허태정 대전시장, 김종천 대전시의회의장, 허정무 재단법인 하나금융축구단 이사장을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및 프로축구연맹 관계자와 구단 서포터즈, 대전 시민 등 약 2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창단사를 통해 “대전하나시티즌 창단은 ‘함께 성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일 대전 충무실내체육관에서 대전 시민들과 함께 새롭게 태어날 프로축구 구단 ‘대전하나시티즌’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단식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의 구단주인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가운데)이 구단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과 뜻을 같이 한다”며 “지난 1997년 대전시티즌 창단 때부터 히로 애락을 함께하며 응원한 인연을 바탕으로 이번에 새롭게 창단하는 대전하나시티즌을 통해 대전광역시 ‘축구 특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나금융그룹과 150만 대전 시민 모두가 축구로 하나가 되어 함께 환호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이를 통해 대전하나시티즌을 국내 무대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구단으로 성장 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수단 기자간담회에 이어 가

진 공식행사에서는 구단 양수도 계약 조인식과 대전하나시티즌 창단선포식을 통해 새로운 구단 엠블럼과 유니폼을 공개하고, 황선홍 신임 감독 및 선수단 소개와 구단기 전달식을 가졌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대전시로부터 ‘대전시티즌 투자 유치 제안서’를 받은 이후 11월 대전시와 하나금융그룹 간 ‘구단 양수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발기인대회를 거쳐 ‘재단법인 하나금융축구단’을 설립했다. 초대 이사장으로 허정무 전 프로축구연맹 부총재를 선임하고, 구단 인수 및 창단 준비를 착실히 진행한 결과 이날 공식적인 창단식을 가졌다.

/홍민영 기자 hong93@

“판단부터 이유까지 설명하는 AI... 新 개발 트렌드 부상”

AI 판단에 ‘블랙박스’ 큰 맹점
“이유 설명 못하고 확률로 계산”
글로벌·국내기업 XAI정보공유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업체들이 ‘익스플레인블(Explainable, 설명가능한) AI(XAI)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올해 가장 큰 트렌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IBM 등 글로벌 기업에 이어 국내 AI 전문업체들도 익스플레인블 AI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XAI 세미나도 개최해 AI 업체들과 정보 공유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현재의 AI가 특정 판단을 내릴 경우, 알고리즘 설계자조차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라는 큰 맹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는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AI의 결정을 따르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익스플레인블 AI는 AI가 판단한 이유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으로, AI의 사고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AI의 ‘블랙



솔트룩스 AI 세미나에서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가 익스플레인블 AI인 ‘뉴로 심볼릭’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솔트룩스

박스’ 문제가 해결되면 AI가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 가장 발빠르게 익스플레인블 AI를 개발하고 있는 AI 업체는 마인드 AI로, 인간의 추론을 공식화한 새로운 데이터 구조인 ‘캐노니컬(Canonical)’을 적용한 범용 AI 엔진을 개발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의 AI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확률로만 계산해 실행에 옮긴다”며 “우리의 AI는 심볼릭(기호적) 방식을 사용해 언어를 이해하

는 포물러(공식)를 찾아내 어떤 이론을 사용해 결론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엔진을 활용하면 연역법, 귀납법, 귀추법 등 인간의 추론 방법을 구현한 알고리즘을 통해 참·거짓의 단방향의 추론이 아닌 양방향 입체적인 추론을 가능케한다는 것.

마인드AI는 현재 이 엔진을 적용한 챗봇 플랫폼을 구축해 태국 등지에서 시범 테스트를 진행 중이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솔트룩스는 익스플레인블 AI인

‘뉴로-심볼릭 AI’ 개발에 나서고 있다.

뉴로-심볼릭 AI는 심볼릭 AI와 논(non) 심볼릭 AI가 동시에 사용되는 ‘양상블 AI’로, 지식학습은 개체연결, 관계연결 기술이 사용돼 지식을 검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심볼릭 방식은 의미적 설명, 연역적 추론이 가능하며, 지식그래프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고, 논심볼릭 방식은 최근 대세인 딥러닝(심층신경망) 방식으로, 데이터 주도로 귀납적 추론은 가능한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솔트룩스는 이미 양상블 AI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

솔트룩스는 지난 9월에도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과 지식그래프’를 주제로 원데이 세미나 및 튜토리얼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오는 2월 14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개발과 산업별 적용방안 세미나’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설명 가능한 AI 개요 ▲AI 영상 이해와 시각화 기법 등을 활용한 XAI 개발 ▲설명 가능한

강화학습과 아타리 게임에 적용 ▲서비스 XAI를 이용한 위성영상 분석과 적용방안 ▲XAI를 이용한 의료·헬스케어 적용 방안 ▲XAI를 이용한 금융·핀테크 솔루션 개발과 적용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알고리즘의 복잡성으로 알 수 없었던 최종 결과의 근거를 제시하게 될 XAI는 올해 산업경제 전반을 강타할 것”이라며 “이번 행사는 XAI의 핵심을 파악하고 국내외 시장 동향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AI 선두주자인 IBM이 2018년 말 AI의 편향성, 신뢰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AI 오픈스케일’을 선보였는데, 이 제품이 익스플레인블 AI의 초기 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AI 오픈스케일은 AI 블랙박스와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이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편향성이 탐지되면 신속하게 자동으로 대응하는 AI 시스템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병상서 6번째 생일맞는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家, 한 자리에

의식은 없지만 자가호흡 가능한 상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 6번째 생일을 맞는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는 9일 78번째 생일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 중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와 같이 여전히 의식은 없지만, 인공호흡기나 특수 의료장비 도움을 받지 않고 자가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외부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산책하거나 마사지, 자극 치료 등도 병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10일 서울 용산 이태원동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7번째 와병 중이다. 병상에서 생일은 올해로 6번째다.

올해에도 삼성전자는 별다른 행사나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건강했던 2012년 이건희 삼성 회장. /뉴스1

이 회장 와병 초기에는 사내 방송 등에서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지만, 2018년부터는 별도 행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가족들은 문안 인사차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고(故) 이병철 회장 추도식에서는 이 부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재웅 기자 j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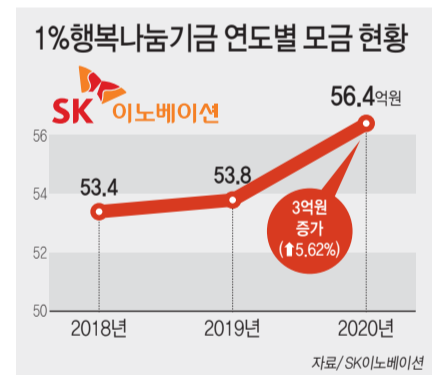
SK이노베이션, 올해 ‘1%행복나눔기금’ 163억 조성 “사회적 가치 선순환... 회사 성장에 원동력”

협력사 상생·사회공헌 97억 집행
“노사 협력... 더 큰 가치 사회 환원”

SK이노베이션이 올해까지 163억원 가량의 ‘1%행복나눔기금’을 조성한다.

SK이노베이션은 노사합의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1%행복나눔기금이 올해까지 총 163억6000만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 중 약 97억원을 협력사 상생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1%행복나눔기금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의 기본급 1%를 기부하면 회사도 같은 금액을 기부해 모금하는 방식이다. 2017년 9월 노사가 임단협 합의를 통해 같은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조성된 약 107억 2000만원 중 약 10억원은 올 1분기 집행용으로 이월됐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회사 매칭그랜트를 포함해 약 56억4000만원이 1%행복나눔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기존 미참여 구성원의 참여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회사가 답체인지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면서 구성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신규로 입사하는 구성원 대부분이

1%행복나눔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며 참여 구성원 수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성훈SK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들이 1%행복나눔 참여로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는 다시 선순환 돼 회사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SK이노베이션은 노사 협력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사회에 환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에너지 울산컴플렉스에서 1%행복나눔기금 후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난치병·소아암 아동 치료비 지원 후원 아동 부모는 “긴 투병기간 동안 병마와 싸우며 거액의 치료비 부담에 희망을 잃어 갔었는데 SK의 1%행복나눔 기금 덕분에 꼭 필요한 치료를 해줄 수 있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티웨이항공, 겨울 맞아 ‘스키장 프로모션’

베어스타운 리조트 제휴... 할인 혜택

티웨이항공이 스키장 제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티웨이항공은 베어스타운 리조트와 함께 겨울 시즌 스키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휴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스키타러 티웨이랑 갈꿈’ 프로모션은 티웨이항공 탑승권을 소지하고 고객 대상 현장 할인 혜택 제공과 SNS 참

여 경품 이벤트로 진행된다. 국내선과 국제선 상관없이 6개월 이내 사용한 티웨이항공 탑승권을 제시하면 베어스타운 리조트에서 리프트 40%, 장비 렌탈 40%, 의류 렌탈 20%, 눈썰매장 40%의 할인이 제공된다.

또한 객실도 주중 55%, 주말 45% 할인이 제공되며 유선으로 예약 가능하다. 현장 할인 프로모션은 베어스타운 스키장 시즌이 운영되는 오는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김수지 기자

팅크웨어, CES서 ‘증강현실 솔루션·블랙박스’ 신기술 공개

4K·커넥티드 기능 블랙박스 출시

팅크웨어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0’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9년 연속 CES에 참가하는 티ंक웨어는 ‘드라이빙, 미래를 향한 기록과 여정,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와 콘셉트로 ‘디지털 AR(증강현실) 솔루션’, ‘블랙박스(대시캠)’ 등 총 2개의 테마공간을 구성해 신기술과 제품을 적극

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우선 이번 전시의 메인으로 증강현실(AR) 솔루션을 공개한다. 회사는 2014년 아이나비 X1 제품을 통해 실제 화면에 그래픽을 겹쳐서 증강현실기능 ‘익스트림 AR’을 적용해 제품을 상용화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및 클러스터, 내비게이션 등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엔진과 같은 라이브러리 형태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선보인다.

블랙박스 부분은 국내 및 글로벌 기

존 제품을 비롯해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을 선보인다.

국내 최초 4K 영상화질과 커넥티드 기능이 탑재된 플래그십 블랙박스 ‘아이나비 퀴텀 4K’를 비롯해 해외향 커넥티드 서비스가 적용되는 ‘팅크웨어 대시캠 T700과 X700’, 출시 예정 제품인 ‘블레이드(Blade)’, 360도 전방위 녹화 기능을 갖춘 All FHD 4채널블랙박스 ‘아이나비 QXD 메가 4채널’ 등 주요 제품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올해도 행복해야쥐”

2020년. 경자년. 쥐의 해. 새해 아침.

SK하이닉스가 기쁜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올해 행복이 가득하시길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르노삼성자동차 더 뉴 QM6.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 '더뉴QM6' 국내 SUV 판매량 1위 트렌드·고객 두토끼 잡았다

QM6 GDe, 가솔린 SUV시장 개척 소비자 요구 맞춰 파워트레인 선택

르노삼성자동차 '더 뉴 QM6'가 다시 한번 '대박'을 냈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더 뉴 QM6가 국내 SUV 중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더 뉴 QM6는 지난해 6월 출시된 QM6 부분변경 모델이다. QM6 GDe로 가솔린 SUV 시장을 개척했으며, 더 뉴 QM6에는 LPG 연료를 쓰는 LPe 모델을 처음 선보이며 새로운 도전에 성공했다.

더 뉴 QM6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7월 4262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고, 11월까지 누적 2만3237대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12월에 7558대를 판매하며 1위를 차지하게 됐다.

그 중에서도 더 뉴 QM6 LPe는 전체 판매량 4만7640대 중 43.5%나 됐다. '도넛 탱크'를 탑재해 높은 연비와

정속성, 공간 활용성까지 갖춘 덕분에다. 아울러 더 뉴 QM6에는 1.7l 다운사이징 디젤엔진도 새로 추가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했다.

르노삼성은 더 뉴 QM6 성공 요인을 '고객을 위한 가치 추구'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이라고 분석했다.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한발 앞선 파워트레인을 선보이고, 이에 걸맞는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

르노삼성자동차 김태준 영업본부장은 "고객을 위한 가치 추구"도, '트렌드를 선도하는 제품'도 결국 그 중심에는 고객이 있다.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제품을 만들어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며 "르노삼성자동차는 더 뉴 QM6를 통해 이 같은 공식을 입증했으며, 2020년 새해에 출시할 신차에도 이러한 르노삼성자동차만의 가치를 담아내어 고객들로부터 다시 한번 인정받는 제품을 선보일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U+tv 고객이 자녀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LG유플러스

'U+tv' 이용자 절반, 아이들나라로 유입

LGU+, 서비스 가입이유 설문 가입 혜택, 결합 할인 혜택 順

LG유플러스의 'U+tv' 이용자의 절반이 영유아 특화 서비스인 '아이들나라'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TV(IPTV)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U+tv를 이용 중인 고객 중 750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 이유를 묻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아이들나라'로 응답한 가구가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가입혜택' 때문이라고 응답한 고객은 44%로 2위를 기록했으며, 모바일 '결합할인 혜택'으로 응답한 고객이 33%로 그 뒤를 이었다.

아이들나라를 월 5회 이상 이용한 고객의 해지율은 5회 미만 이용 고객

대비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빅데이터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온라인상 언급량 56%, 내용 호감도 46.9%를 기록했다.

설문 응답자 중 5~7세 자녀를 둔 부모 고객들은 ▲유튜브 광고, 유해 콘텐츠 등 시청 고민을 유튜브 키즈로 해소 ▲타사 대비 다양한 무료 콘텐츠 ▲대형 출판사 전집 위주가 아닌 베스트셀러를 구연동화 작가가 직접 읽어주는 리딩 방식 ▲누리 과정의 연령대별 과 정별 월별 체계적 구성 등을 아이들나라의 장점으로 꼽았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아이들나라의 증강현실(AR)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케이블TV에도 아이들나라를 적용해 LG헬로비전 고객들도 특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삼성전자, 2020년형 'QLED 8K' 신제품 공개

기술 총집합... TV스크린 새 기준

'CES 2020' D-2

화면 베젤 없는 '인피니티' 디자인 화질 관계없이 8K수준 고화질 변환 주위 환경 인식, 화면 밝기 자동조정 최적의 사운드 찾아주는 'Q-심포니'

삼성전자가 7일부터 10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0'에서 2020년형 'QLED 8K' 신제품을 공개한다.

2020년형 QLED 8K는 한층 진화한 AI 기술로 화질에서 사운드, 스마트 기능까지 제품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이뤘다. 또한, 화면 베젤을 없앤 '인피니티' 디자인을 적용해 TV 스크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더 완벽해진 화질... 딥러닝 적용 'AI 퀀텀 프로세서'

삼성전자는 2020년형 QLED 8K에 머신러닝과 딥러닝 방식을 결합한 AI 퀀텀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딥러닝 방식 적용으로 원본 영상의 화질에 관계없이 8K 수준의 고화질로 변환해 주는 업스케일링 기능을 한층 강화해 복잡한 윤곽과 질감을 더 섬세하게 표현한다.

또한 2020년형 QLED 8K는 '어댑티브 픽처' 기능이 새롭게 적용돼 어떤 시청 환경에서도 최적화된 밝기와 명암비를 제공한다. TV가 주위 환경을 인식해 자동으로 화면 밝기를 조정한다. 삼성전자는 영상 스트리밍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 손실을 줄여 주는 'AI 스케일넷' 기술도 탑재했다. 이 기술은 아마존과의 협업을 통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앱의 영상에 적용될 계획이다.

◆더 풍부한 서라운드 사운드

2020년형 QLED 8K는 풍부한 사운드 구현을 위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영상 속 움직이는 사물을 인식해



2020년형 QLED 8K 신제품 'Q950TS'

/삼성전자

사운드가 TV에 탑재된 스피커들을 따라 움직이는 기술인 'OTS+'가 적용됐다. 이 기술을 통해 TV만으로도 5.1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구현이 가능해져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장면 등 화면에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몰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TV와 사운드를 연결해 사용할 때, TV와 사운드의 스피커를 모두 활용해 최적의 사운드를 찾아주는 'Q-심포니' 기능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 기능은 CES 최고 혁신상을 받았으며, 집 안 전체에 더욱 풍성하게 전달되는 9.1.4채널의 고품격 사운드를 선사한다. 또한, TV가 주위 소음을 인식해 영상 속 화자의 목소리 볼륨을 조정하는 'AVA' 기능도 탑재했다.

◆'인피니티' 디자인 적용

2020년형 QLED 8K는 화면 베젤을 없앤 인피니티 디자인이 특징으로 화면의 99%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또한, 15mm 초슬림 디자인과 완전히 평평한 뒷면을 구현해 명품 스크린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다.

◆AI·연결성 기반 사용자 경험 혁신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니버설 가이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콘텐츠 중심으로 새롭게 디자인했다. 또, 삼성 스마트 TV 사용자라면



2020년형 QLED 8K 신제품 'Q950TS'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TV 플러스'는 뉴스,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내 글로벌 기준 120여 개 채널을 제공할 예정이다.

TV를 보면서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는 '멀티뷰' 기능도 탑재했다. 사용자들은 '나란히 시청'부터 '화면 속 화면' 방식 등 원하는 형태로 2개의 콘텐츠 동시 시청할 수 있다.

2020년형 QLED 8K는 음성인식 서비스 폭도 넓어졌다. TV 기능 제어와 콘텐츠 경험에 최적화된 삼성 빅스비 외에도 아마존 알렉사와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삼성 갤럭시 20·클램셀 폴더블폰 베일 벗는다

내달 11일 미국서 '언팩행사' 개최 갤럭시 S10 후속작, 버즈 등 공개 전망

삼성전자가 5세대(5G) 이동통신 스마트폰 '갤럭시 S10'의 후속작과 클램셀(조개껍질) 형태의 폴더블폰 언팩(공개) 행사를 연다.

삼성전자는 내달 11일 오전 11시(현지 시간. 한국시간 12일 오전 4시)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오브 파인 아트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신제품 언팩 행사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에 초청장을 보내고, 새로 출시될 스마트폰에 관한 힌트를 영상으로 공개했다. 언팩 행사에서는 갤럭시 S10 시리즈의 후속 제품과 가로축을 중심으로 접는 클램셀 폴더블폰,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의 후속작 등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언팩' 포스터.

/연합뉴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갤럭시' 철자 중 알파벳 a를 대신해 흰색 사각형 모양이 회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a를 대체한 직사각형은 갤럭시 S10의 후속작을, 두 번째 a를 대체한 정사각형은 클램셀 폴더블폰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있다. 이와 함께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새로 출시될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이라는 예상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움에서 갤럭시 S10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 등 스마트폰

과 갤럭시 버즈, 갤럭시 워치 액티브, 갤럭시 핏 등 웨어러블 기기를 공개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 미국 뉴스를 통해 정사각형 카메라 모듈이 탑재된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를 공개했다.

갤럭시 S10 시리즈 후속작에 대한 궁금증도 불거지고 있다. 외신과 업계에서는 갤럭시 S10 시리즈의 후속작 명칭이 갤럭시 S20, 갤럭시 S20 플러스, 갤럭시 S20 울트라(가칭)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아울러 이 행사에서는 삼성전자의 두 번째 폴더블폰도 공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화면 상단 중앙 카메라를 제외하고 전체를 화면으로 채운 '홀 디스플레이'와 후면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격은 갤럭시 폴드(239만8000원)보다 저렴한 100만원대 중후반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김나인 기자

검단 내 최고입지... 규제 없고 역·숲·학세권 다 갖춰

분양 하이라이트

인천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올해 마수결이 아파트 분양단지 나왔다. 2020년 첫 분양아파트인 만큼 견본주택을 방문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 3일 견본주택을 열고 인천 검단신도시에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1122가구에 대한 분양에 돌입했다. 지난 5월 동양건설산업이 분양한 '검단파라곤 1차' 887가구에 이은 이 지역 두 번째 공급이다.

검단신도시 AA2블록에 지어지는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1122가구 규모다. 그러나 전용 84㎡ 단일면적 두 가지 타입만으로 구성돼 선택 폭이 좁은 게 아쉽다는 평가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A㎡ 582가구 ▲84B㎡ 540가구다.

◆ 3.3㎡당 평균 분양가는 1247만원

분양관계자는 "일반적으로 4인 가구 입주와 전용 84㎡ 선호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247만원이다. 유형별 분양가는 ▲84A㎡ 3억7400만~4억3000만원 ▲84B㎡ 3억7400만~4억3000만원이다. 계약금은 10%며, 중도금(60%) 대출은 이자후불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3일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 내방객들이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정연우 기자

3.3㎡당 평균 분양가 1247만원
전용 84㎡ 단일면적 두 가지 타입
3면 발코니에 내집 앞 창고까지

2024년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계양~서울역 30분대 이동 가능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차량 10분 거리에 있는 김포 풍무지구의 '풍무푸르지오'의 전용 84㎡ 최근 시세가 5억5000만원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약 1억원가량 저렴하다. 발코니 확장비는 1500만~1550만원이다.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는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도 검단신도시가 속한 인천시 서구는 추첨제를 통해 80%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더라도 그만큼 당첨확률이 높다.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분양했던 검단 파라곤 1차에 비해 평균 분양가가 비싸다"라며 "청약하고 싶어 왔지만 1차 파라곤에 이어 이번에도 당첨은 어려울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검단 파라곤 1차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188만원이다.

이 아파트는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5일이며, 정당계약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 2024년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개통
전용 84㎡ A, B 타입 전시관을 둘러봤다. 거실 폭 7m, 한 눈에 보기에 넓

다는 느낌이다. 분양관계자에 따르면 거실과 주방 구분이 거의 없다. 전 가구에 3면 발코니를 적용했다. 드레스룸과 다용도실도 넓게 설계됐다. 여기에 파라곤1차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내 집 앞 창고'를 제공해 유모차와 자전거 등을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이종혁(36)씨는 "거실이 넓게 설계 돼 상대적으로 침실이 좁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그러나 입지조건, 교통호재 등을 고려하면 미래 가치가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단파라곤 센트럴파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교통이다. 교통 개발 호재는 이 지역 핵심 호재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비전 2030'에 의하면 인천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및 GTX-D 노선 신설 계획 등이 포함됐다.

2024년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연장 개통되면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3개 정거장이 신설되며 김포공항역까지 약 6분이면 닿을 수 있고,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하면 서울역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이 추진중이어서 서울과의 접근성은 더욱 높아진다. 인천지하철 2호선(검단신도시~일산킨텍스)도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원당~태리간 광역도로가 개통 예정이어서 올림픽대로까지 10분이면 진입하고 검단~경명로간 도로까지 개통되면 공항철도와도 바로 연결된다.

교육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영어마을과 에너블 국제학교가 단지와 맞닿아 있다. 유·초·중·고교도 단지 바로 인근에 들어선다.

'친환경 아파트'라는 평도 있다. 5만 5696㎡의 대형 근린공원이 단지와 맞닿아 있어 아파트단지와 바로 이어진 쾌적한 공원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인근에는 계양천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이밖에도 인천지법 북부지원, 인천지검 서부지청 등 제2법조타운과 경찰청, 행정기관 등이 계획돼 있다.

한편 '검단 파라곤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329 일대에 마련됐다. 입주하는 오는 2022년 6월이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해외주식 키워드는 ‘마이스·체인지’”

개인 순매수에 중소형주 펀드 2% 수익

삼성증권, 테마·종목키워드 제시

삼성증권이 올해 글로벌 주식투자의 4대 테마로 '마이스(M·I·C·E)'를, 추천종목 키워드로는 '체인지(C·H·A·A·N·G·E)'를 제시했다.

'M·I·C·E'(위의 복수)는 거시경제(Macro), 이자(Interest), 중국(China), 선거(Election)의 앞 글자를 딴 키워드다. 삼성증권은 각각의 키워드가 2020년 글로벌 주식시장을 관통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거시경제(Macro)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완화 조짐'을 의미한다. 이자(Interest)는 '하락 일변도에서 안정적인 박스권으로 변하는 장기금리의 추세'를, 범 중화권(China)은 '본격적으로 개방되는 중국의 자본시장과 중국 5G 서비스의 시작'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선거(Election)는 '미국 대선 등 달라지는 세계 정치환경'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4대 테마와 더불어 올해 고수의 추구형 투자자를 위한 추천 주식 포트폴리오 'C·H·A·A·N·G·E'도 제시했다.

'C·H·A·A·N·G·E'는 '2020 라이벌 픽스(Rival Picks)'로 추천한 10종목 가운데 대표 유망 종목들의 알파벳 표기를 하나씩 따서 만든 키워드다. 중신증권(Citic), 항서제약(Hengrui), 아마존(Amazon), AMD, 나이키(Nike), 구글(Google), 테슬라(Tesla)가 그것이다.

모두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로 눈길을 끈다. 내년 글로벌 주식 시장은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보다는 시장별로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삼성증권 측의 설명이다. 'α(알파)'수익은 미국이 주도하는 고부가가치산업과 글로벌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추천 종목의 경우 지난해에도 한 해 평균 주가 상승률이 59.9%로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7.7% 상승한 코스피 지수는 물론 약 22% 상승한 다우존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송태화 기자 alvin@

주간펀드동향

국내 주식형 펀드 0.72% 상승
대형주 하락, 중소형주 위주 강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인덱스펀드인 코스피200 위주로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됐고, 중소형주 펀드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12월27일~1월 2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0.72% 소폭 상승했다. 대형주는 하락했지만 중소형주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중소형주펀드가 2% 가까이 상승한 영향이다.

공모펀드 유형 중 국내주식형 펀드로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한 주간 1조 596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순자산은 1조5380억원 늘었다. 특히 코스피 상승에 베타하는 인덱스코스피200형의 자금 유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펀드는 1.0% 올랐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중국 지역의 펀드가 2.56%로 수위를 기록했다.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경기 부양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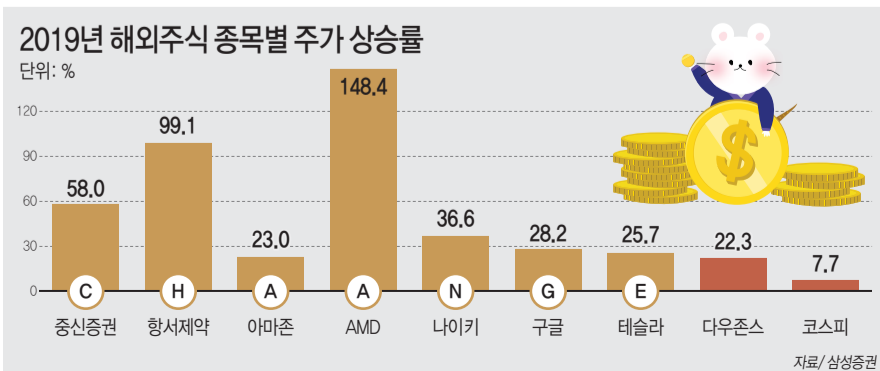
해당기간 해외주식형으로 85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전체 순자산은 3290억원 늘었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펀드는 'NH-Amundi코스닥2 배려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

형]ClassA'(6.86%)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은 전주에 이어 금펀드인 '블랙록월드골드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H)(C-e)'이 6.68% 수익률로 수위에 올랐다.

한편 해당 기간 국내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1.04% 하락한 2175.1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저가 매수세로 개인은 8465억원 순매수했지만 기관과 외국인도 각각 6149억원, 2804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0.67%, MSCI신중국(EM) 지수는 전주 대비 1.43% 상승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금감원, 판례집 발간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기업공시 판례 분석'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 보호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2002년 이후 불공정거래와 기업공시 위반사건에 대한 판례집을 발간해 왔다. 개정·증보된 이번 판례집에서는 신규판례를 추가해 총 663개의 판

례를 수록했다.

판례집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판'과 '기업공시판'의 2권으로 구성됐다.

불공정거래판은 총 389개의 판례가 수록돼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허위·과장공시를 통한 무자본 인수합병(M&A), 증권방송을 이용한 선행매매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사건 판례를 추가했다.

기업공시판은 발행·유통·지분 등 각

각의 공시유형별 판례와 과징금 부과시 주요 쟁점이 되는 고의·중과실 인정 등과 관련된 판례 등 총 274개의 판례를 수록했다.

판례집은 법원, 검찰, 금융위, 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 또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전자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500만개 DB구축... 온라인마켓 판매 '원스톱' 해결

도전! 스타트업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 제공 브릿지존

네이버·옥션·11번가·쿠팡 등 높은 오픈마켓 문턱에 다리 역할
품질·재고관리 진행, 실시간 적용 경쟁사비 절반값, 창업 무료교육



브릿지존 전현철 대표(오른쪽)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브릿지존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이 유행이다. 적은 자본과 노동력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투잡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점은 문제다. 사업자 등록부터 웹페이지 개설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팔 수 있는 물건을 찾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브릿지존은 온라인 소매상으로 가는 다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하는 회사다. 가입자에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을 제공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옥션, 11번가와 쿠팡 등 온라인 스토어에 원스톱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브릿지존이 경쟁사와 비교해 가장 우수한 점은 500만개에 달하는 상품 데이터베이스다. 자체적으로 도매업체를 발굴했을 뿐 아니라, 동종업계에서도 협조를 받은 덕분에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제품을 중계할 수 있게 됐다. 판매자 편의를 극대화한 인터페이스도 장점이다. 데이터베이스가 플랫폼과

연계돼 클릭 몇번 만으로 바로마켓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다. 품질과 재고 관리리는 브릿지존에서 직접 진행하고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적용한다. 물품 설명 등 세부 사항도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 회원 중에서는 일반 직장인들도 많다는 전언이다. 가격도 경쟁사보다 절반 수준인 10만~2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창업 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도 브릿지존

만의 전략이다.

브릿지존 전현철 대표는 "2015년 처음 창업한 후 플랫폼을 3번이나 다시 개발해 지금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게 됐다"며 "현재 150명 정도 회원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브릿지존 창업 전 직접 오픈마켓을 운영했었다. 둘째 자녀 출산을 앞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에도 성공했다. 유통업계에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 새로운 노하우를 새로 축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운영사였다. 전 대표 소개로 창업했던 지인들이 운영사의 돌연 폐업으로 어려움에 빠졌던 것. 이에 따라 전 대표는 아예 플랫폼 업체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하고 2015년 회사를 처음 세우게 됐다.

어려움도 많았다. 당장 자금을 끌어모으기가 가장 어려웠었다. 플랫폼도 3번이나 다시 제작해 직접 개발하는 지 금에 이르렀다. 결국은 5년여 만에 탄탄한 구조를 완성해냈고, 지난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과 광주광역시 리우수기업 인증서를 받는 데에도 성공했다.

브릿지존이 단지 유통플랫폼 사업만을 염두에 두고 세워진 회사는 아니다. 전 대표는 앞으로 오픈마켓뿐 아니라 스타트업에 특화한 상표권을 연결해주는 등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브릿지존이라는 이름 역시 사업자들에 다리를 연결해줄 것이라는 의미로 만들었다고 전 대표는 설명했다.

전 대표는 "브릿지존은 연결해주는 사업을 목표로 한다"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유통관리를 개척하는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난방제품 부진 속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인기

온난 기후에 겨울가전 매출 30% ↓
'나비엔 매트' 판매 전년비 44% ↑



경동나비엔의 온수매트 '더 케어'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난방제품 매출이 푹 떨어진 가운데 경동나비엔의 온수매트가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2015년 당시 우수한 온도제어 기술력을 갖춘 온수매트 '나비엔 매트'로 시장에 포문을 연 주인공이다. 특히 첨단 기능을 접목하고,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 온수매트 '더 케어(The Care)'를 지난해 9월 출시하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다.

5월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프리미엄 온수매트 나비엔 매트는 지난해 9~11월 사이 판매량이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43.6%나 늘어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온수매트는 통상적으로 가을이나 초겨울이 성수기다. 또 2018년 기준으로 경동나비엔의 온수매트 매출액은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며 연평균 32.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예년에 비해 온난한 기후로 여타 겨울철 제품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 유통업계에 따르면 예년의 경우 청소년이나 성인들에게 모두 인기가 높았던 톱패딩 판매는 전년에 비해 최소 1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등 겨울 가전 역시 매출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동나비엔 온수매트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은 바로 '더 케어'다. 이 제품은 ▲스마트 분리난방 ▲다중 안전장치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를 통한 원격제어 ▲1mm 초슬림매트 등 기존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편리함과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매트 내에 흐르는 물을 스스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셀프 이온케어'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관리가 더욱 편리하다. 이는 99.9% 이상의 살균 성능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KTR)으로부터 주로 정수기에 제품에 주어지는 살균인증마크를 업계 최초로 획득하며, 매트 내 물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쾌적한 수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난방 기능도 두루 갖추고 있다. '더 케어'는 기존 제품 대비 약 40% 빠르게 온기를 전달하며, 각 생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온도를 제안하는 오토 히팅 기능도 추가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간대별로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맞춤형 온도 모드를 제공, 사용자의 수면 패턴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집 밖에서 미리 온수매트를 켜두면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온수매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서 "수면모드를 통해 전자는 동안 체온의 변화에 따라 설정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중간에 깨지 않고 숙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피부에 닿는 감촉까지 고려한 감성 품질 역시 돋보인다. 커버부는 100% 순면 소재를 사용하고, 형광표백이나 염색처리를 하지 않은 원단으로 제작해 피부 자극을 줄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3일 대전 중리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조선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전통시장서 새해 첫 일정

상인 간담회, 장보기 행사 등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조봉환 이사장이 지난 3일 대전 유성에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중리전통시장에 방문해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5일 밝혔다.

조 이사장은 당일 오전 11시 공단 임직원들과 함께 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곧바로 중리전통시장에 방문했다.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중리시장은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1기관 1시장' 자매 결연을 맺고, 전통시장 활력 찾기에 힘써오고 있다. /김승호 기자

조 이사장은 이날 현장에서 시장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논의했다. 중리전통시장 김경진 상인회장은 "새해 첫 일정으로 중리시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올해 공단과 함께 협력해 가격표시를 확산하고 신뢰받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이후에는 장보기 행사가 이어졌다. 장보기 행사에는 공단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떡과 과일을 구매해 대전 동구에 위치한 행복한 어르신복지관에 기부했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매트리스, 라돈걱정 마세요"

41개 품목 '라돈 안전제품 인증'

시몬스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일반 시판 매트리스(침대용) 41종 품목에 대해 '라돈안전[제품]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라돈안전[제품]인증'은 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라돈안전센터가 공동 개발한 라돈안전 평가모델을 토대로 한 제도

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라돈안전 평가를 제시해 라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기업의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엄격한 평가 과정을 실행해 통과한 제품에만 '라돈안전[제품]인증'을 수여하고 있다.

시몬스 침대는 엄격한 관리로 완성도 및 신뢰성이 높은 자체 생산 시스템을 통해 표준협회로부터 일반시판 매트리스



스(침대용) 41종 품목에 대해 라돈안전[제품]인증을 받았다. 라돈안전인증 평가는 측정점수(600점)와 관리시스템(400점)으로 구성됐으며, 샘플을 측정해 라돈 방출량 결과가 라돈안전 인증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는지 확인한다. 또한, 제품생산업체의 경영자 인식, 조직 및 자원관리, 자재관리, 운영관리 등을 평가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야 인증한다. /김승호 기자

8일부터 '특허청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

특허청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3개 도시에서 '2020년 특허청 지원사업 합동 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15일 광주, 17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해 특허청 지원사업의 성공사례와 지원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이번 행사에는 지식재산 창출 사업 5개, 지식재산 보호 사업 2개, 지식재산 활용 사업 3개로 총 10가지 사업이 소개된다.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한 지식재산권을 선점하고 보호받는 일이 중요하다"며 "특허청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알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THINKWARE

아이나비

아이나비 CONNECTED

스마트폰으로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아이나비 QUANTUM2
국내유일 전후방 QHD 커넥티드 블랙박스



아이나비 Connected

NB-IoT(협대역 사물 인터넷 기술) Connected 기술을 탑재하여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통신형 블랙박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차 충격 알림**
외부 충격 당시 촬영된 스틸 컷 전송
- 차량 위치 확인**
스마트폰 App으로 차량 위치 확인
- 원격 전원 제어**
스마트폰 App으로 블랙박스 전원 Off
- 차량 정보 표출**
배터리 잔량, 연비 등 차량 정보 확인

아이나비 CONNECTED

전·후방 320° QHD

F1.6 후방렌즈 | Vision BSD | Extreme ADAS | 울트라 나이트 비전 | 전방위 주차녹화 | 주차 저전력 강화 | Format Free 2.0 | Drive X

유니콘 투자릿수 시대... 제2 벤처붐... 스타트업 '힐힐'

2020 희망을 쏘다 <10> 스타트업

벤처투자액 전년 비 22% 증가
유니콘社 11개, 獨과 공동 5위

각종 신산업 규제에 희비 엇갈려
공유주방·P2P 등 성장기반 마련
타다 등 모빌리티산업 발목 잡혀



컴업 조직위원회가 지난해 11월28일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19 개막식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한 해 동안 스타트업계는 전
에 없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정부의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발표와 함께 벤처
투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니
콘 스타트업도 11개를 돌파하며 세계 5
위에 올라섰다. 반면, 타다 기소 등으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논란의 중심에서
기도 했다.

◆제2벤처붐...4조 투자 돌파 가능성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6일 '제2벤
처붐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힘입
어 2019년 신규 벤처투자액은 4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019년 벤처투자는 3조811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 증
가한 수치다. 정부와 업계는 지금까지의
투자 추세를 고려할 때 연간 벤처 투자

가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업 7년 이내의 모험투자가 전체의
75.2%를 차지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4
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1
조599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276억
원) 대비 30.3% 늘었다.

2019년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수는 11
개로 독일과 함께 공동 5위로 올라섰
다. 쿠팡·크래프톤·옐로모바일·L&P
코스메틱·우아한형제들·위메프·비바
리퍼블리카·지피클럽·야놀자·무신사
·에이프로젠 등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대규모 엑시트도 주
목받았다. 지난해 9월 여기어때는 영국의
CVC캐피탈에 4000억원 규모로 매
각됐고, 10월에는 AI 기업 수아랩이 미
국의 코크넥스에 2300억원 규모로 인수

됐다. 12월에는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의 딜리버리히어로에 4조8000억원이라
는 거액으로 매각되며 주목받았다.

◆규제 샌드박스·P2P법안 통과 vs 타 다 기소·데이터 3법 국회 계류

2019년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
입되면서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가로막
혔던 신산업을 실험할 수 있었다. 스타
트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대표적
사례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륙), 코
나투스(반반택시), KST모빌리티(마카
롱택시) 등이다.

공유주방 '위륙'을 운영하는 심플프
로젝트컴퍼니는 지난해 7월 규제 샌드
박스 허가를 받으면서 한 주방에 여러
개의 사업체가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주방을 실현했다.

코나투스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로 규제 샌드박
스를 통과했다.

P2P 금융업계도 지난해 10월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으로 정식
입법화되면서 호재를 맞았다. 렌딧·8퍼
센트 등 P2P 기반의 핀테크스타트업들
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P2
P 금융을 통해 핀테크를 넘어 금융업을
위한 기술이 아닌, 기술이 중심이 되는
금융업을 만드는 '테크핀' 스타트업의
탄생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여전히 규제에 발목 잡힌 업계
도 있다. 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지난
3월 택시업계와 카카오택시는 국
회 중재로 자가용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 카
카오모빌리티, 아디고 등이 서비스를
중요했다. 카풀 업체 풀러스는 회사가
중개료를 받는 대신 이용자가 드라이버
에게 자발적으로 팁을 내는 방식으로
사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11~15인
승 렌터카 유상운송 서비스 '타다'를 운
영하는 모빌리티스타트업 VCNC와 모
기업인 쏘카는 지난 10월 검찰에 기소
됐다. 여기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
토위를 통과하면서 모빌리티 스타트업
의 미래가 안개 속으로 빠졌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
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데이터3법 통과 불
발은 빅데이터·AI·핀테크 등 분야 스타
트업의 탄생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스타트업 실적 압박 가능성

2020년에도 창업생태계로의 투자는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을 기준
으로 약 3조2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가 조성됐고, 정부가 1조5000억원 규모
로 창업 정책 지원을 발표했다 때문이
다. 그러나 위워크의 상장 실패 등을 통
해 스타트업 업계에도 '실적' 압박이 생
길 가능성이 커졌다.

임정옥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은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우버가 IP
O에서 충분한 주가가 안 나오고 있는 등
수익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어 매출을 내는 것뿐 아니라 수익성도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국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수익을 내지 못하
면) 추가 투자를 받지 못하는 등 곤란을
겪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시장의 위축과 정부 재정
확장에 따른 불균형 심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김홍일 디캡트 센터장
은 "불경기에 들어서면서 성장성을 보
는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한 기대가 줄어
들 수 있고, 기업의 투자 여유자금도 줄
어 들 수 있다"며 "모태 펀드에서 정부
자금을 출자하는데 이를 운영할 민간
매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해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사업 축소하고 철수까지... 금리인하에 설 자리 '위태위태'

2020 대부업계 전망

대출 잔액 지난해 6월 이후 감소세
청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늘어
공격적 영업보단 내실 다지기 만전



신와머니가 지난해 3월부터 대출 서비스를 중단했다. /신와머니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유난히 규모가 줄어들든 대부업
계가 올해도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상위 업계 대부업체들은 신용대출을 중
단하는 한편 사업을 아예 철수하는 계
획까지 세웠다. 또 정부의 포용금융 해
택이 금융권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대
부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대부업 대출 규모는 16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7조3000억원
보다 6000억원 줄었다. 대출 잔액은 지
난해 6월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부업계 규모가 줄어드는 배경은 법
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이 크다.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4%다. 지난 2002
년 연 66%에서 꾸준히 내려 왔다. 하
지만 연 20%까지 낮추겠다는 문재인 대
통령의 대선 공약에 힘입어 추가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최근 국
회에서 연 15%까지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최고 법정금리 추
가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는 의미다. 이 같은 분위기에 맞춰 법정
금리가 또 한 번 낮춰지면 대부시장은

하자마자 수요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당
초 계획했던 2000억원의 공급 규모에서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된 바 있다. 햇
살론17은 연 17.9% 금리의 고금리 대환
상품으로 7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하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
등급 6등급 이하이면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라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청년층 정책상품인 햇살론y
outh를 비롯해 근로자햇살론, 미소금
융,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 더 많아지면서 대부업계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햇살론youth는 대학생, 미취업
청년 등의 자금으로 완화를 위해 정부
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달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최대 1200만원 한도에서 연
3.6~4.5%까지의 저금리로 자금을 지
원한다. 현재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
는 18.6%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올해 서민의 금융애로가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재원을 최대
한 동원해 서민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
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정책
은 대부업체들의 잇단 사업 철수로 이
어지고 있다. 현재 신와머니는 신용대
출 중단을 선언했고 2위인 아프로파이
낸셜대부와 4위인 조이크레디트대부금
융(조이)도 사업 철수 수순을 밟고 있
다.

유일하게 업계 3위인 리드코프만 양
호한 실적으로 견디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산와머니가 신규 대출을 중
단하고 러시안캐슈가 저축은행을 인수
하면서 대부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
이 오자 업계의 경쟁이 완화되면서 리드코
프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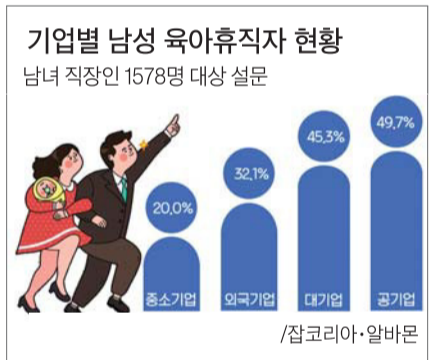
리드코프의 지난해 3분기 매출은
1160억원, 영업이익은 149억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각각 11%, 54% 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회사의 외형 성장이
아닌 비용 통제를 강화하면서 선방한
실적이다. 대체적으로 경쟁업체들이 신
규 대출을 내놓지 않자 저신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리드코프로 몰리면서 마케
팅 비용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대부업계는 전
반적으로 내실에 집중하는 사업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올 3월쯤 총회를 개최한 이후 예산을 승
인받아 올 한해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
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업계가 전반적
으로 대부업출범 이래 가장 어려운 시
기를 보내고 있다"며 "현재 어려움을 극
복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실행하
는 것들이 올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이어 "각 업체들도 현재 공격적인 영
업보다는 규모를 축소해가면서 내실을
기하는 사업형태로 전략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올해 사업 계획도 역시 같은
기조로 수립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 "육아휴직 사용 의향 있어"

올해 2월 말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까지 가능해질 예정인 가운데, 부부 공
동육아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참코리아와 알바몬이 남녀 직장
인 15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에 따르면, 남성 직장인 10명 중 7명
(70.5%)은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사
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5년
전인 2015년 같은 조사 결과(22.0%)와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남성
직장인들도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
할 수 있는지 질문한 결과,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다'(11.1%), '눈치는 보이
지만 사용할 수 있다'(50.5%)고 한 반
면, '사용할 수 없다'(38.4%)는 응답도
상당해 아직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대
한 기업들의 시선이 굵지만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이
유에 대해서는 '남성직원들은 육아휴직
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 분위기 때문'
(40.6%)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
았다. /한용수 기자

文 대통령, 민생경제 최우선... 경제성과 창출 고삐 쥘다

대한상공회의소서 올 첫 행보
“새해 경제·혁신에 더 힘 쏟을 것”
평택항서 친환경차 첫 수출 격려



문재인 대통령은 경자년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지난 3일 '자동차 수출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 평택·당진항을 찾았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경자년 연초부터 경제성과 창출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개혁'과 북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민생경제'가 최우선임을 문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얘기다. 국민의 삶이 나아져야 국정동력이 확보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실제 문 대통령은 경제성과 창출 행보를 연초부터 선보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부 합동신년인사회 장소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선택한 것이 그렇다. 작년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올해 대한상의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것

은 경제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전언이다. 대한상의는 상공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1884년 창립된 법정 민간 경제단체이자 우리나라 경제단체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신년인사회 때 “새

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이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경자년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지난 3일 '자동차 수출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경기도 평택·당진항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새해 첫 친환경차 수출을 직접 지켜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 방문 관련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차 사례를 확산해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는 재계와의 스킨십을 강화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새해부터 경제성과에 총력을 기울이자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이 시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미미하다는 냉정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더욱이 올해 4월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야권은 정권 심판을 베풀고 있다. 현 정권에 대한 종합 평가가 다가올 총선에서 나타날 것이란 예

기다. 총선을 통해 드러날 성적표가 안 좋다면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새해부터 경제성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주 공식 새해 신년사를 발표한다. 지난 2일 대한상의에서 진행된 신년인사회 때 문 대통령 발언이 새해 인사말 성격이라면, 오는 7일 발표할 신년사는 새해 정부 정책방향 및 국정운영 기조 등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다.

여권관계자는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를 맞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경제 활력 회복 등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4·15 총선 불출마 선언에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경제단체장과 전국 상의 회장 등 경제인이 참석해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인사청문회 격돌 초읽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민주당, 4+1협업체 단일안 의결 구상
자유한국당의 '실력 저지' 카드 관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정쟁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의 분회의 처리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고 대치전선을 확대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6일 분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때까지 자유한국당과의 절충점이 없다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 단일안을 의결하겠다는 구상이다.

4+1협의체는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을 강행 처리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또 다시 꺼내 드는 등 '실력 저지'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하나의 정쟁 무대는 정 후보자 인준을 위해 오는 7-8일 실시할 예정인

국회 인사청문회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보통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 후보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직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29석이다. 인사청문회 후 임명 동의안을 분회의에 상정해도 통과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앞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를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맹비난했다.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열리겠지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과 분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석대성 기자

전략공천·힘지출마... 정치권 난세 국면

〈민주당〉

〈한국당〉

민주당, 박영선·진영·김현미 장관 등 의원 20여명 4·15총선 불출마 선언
한국당, 황교안 대표 수도권 출마키로

부·진영(행정안전부)·김현미(국토교통부)·유은혜(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 의원 4명은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장관의 지역구 서울 구로구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들어갈 것이라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하지만 현재 구로구에는 조규영 전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진 장관의 지역구 서울 용산에선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지난해 1월 사임 후부터 지역구 기반을 닦으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당내 예비후보로는 선종문 변호사와 도전수 희망시 민연대 이사장도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 지역구 경기 고양정은 전략공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유 장관의 지역구 고양병에는 이상성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 당 소속 예비후보로 나온 상태다. 이외에 총선을 위해 사표를 던진 청와대 출신 인사는 60여명, 예비후보자가 이미 포화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에선 황대표가 3선 이상 중진 의원의 불모지 출마를 중용하면서 당내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황대표는 앞서 3일 광화문 장외집회

에서 “중진 의원들께서도 험한 길로 나가주시면 좋겠다”며 “저부터 앞장서 올 해 총선에서 수도권 힘지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텃밭은 통상 영남권이란 인식이 크다. 공천권을 쥐는 황대표의 이같은 압박은 영남권 중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PK(부산·경상남도)에선 김무성(부산 중·영도)·김세연(부산 금정)·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김도읍(부산 북·강서울)·김성찬(경남 창원·진해)·윤상직(부산 기장) 의원 등이 자진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TK(대구·경상북도) 의원 중엔 아직까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힘지 출마를 예고한 현역이 없다. PK의 경우 여야 승부처로 꼽히지만, TK의 경우 아직까지 보수권 텃밭으로 자리 잡고 있어 공천만 받는다면 의회 입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개혁보수 진영에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귀주를 주목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야권은 물론 한국당도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환영하고 있다. 다만 안 전 대표는 당장 통합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 전 대표의 행선지가 독자노선인지, 한 축이 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향후 정치지형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석대성 기자 bigstar@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난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의 대거 불출마 선언으로 공백 지역구에서 치열한 경선과 잡음이 나올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에선 황교안 대표의 중진 의원 힘지 출마 요구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소속 현역 중 오는 4월 15일 총선에 불출마할 의원은 비례대표를 포함해 2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는 전략공천(공직후보자추천)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구)을 차기 국무총리로 인선했고, 이낙연 총리는 정 의원 지역구 출마가 유력해졌다.

다만 이외에 민주당이 전략공천하겠다는 빈 자리에선 치열한 경선과 적잖은 반발 등이 나올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가령 지난 3일 박영선(중소벤처기업

“검찰개혁 완수위해 경륜·역량 쏟을 것”

민주당, 고검장 출신 소병철 영입



소 전 고검장은 전남 순천 출신으로 참여 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활동했고, 검찰의 장기발전 청사진 ‘희망을 여는 약속-변화 전략 계획’ 정책기획

더불어민주당이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사천)를 영입했다. 소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모든 경륜과 역량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입인재 4호’로 소 전 고검장 영입을 발표했다.

단장을 맡기도 했다. 2017년에는 검찰총장 후보 4인 중 한 명으로 물망에 올랐다. /석대성 기자

“실패한 고등교육 정책... 대학 아닌 교육부 책임”

이형철 국교련 회장 쓴소리
 설익은 정책들 획일적으로 강제
 황폐화된 대학, 자구책 강구해야



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특성화 방향 등을 고려한 학사구조 및 학사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부족한 채 설익은 정책을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회장은 정부와 교육부에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고 대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대학들도 황폐화된 대학 현실에 대한 책임이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하고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교수들의 참여와 희생은 필수적”이라며 “교수들이 나설 때 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회장은 “지난 10여년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실질적인 대학예산이 감소했고, 서울 소재 대학 대비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 하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교련은 올해도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방대학 몰락을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임을 직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이형철 상임회장(경북대 교수·사진)이 교육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상임회장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선진국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했던 20세기에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교육 시스템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며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했다.

이 상임회장은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교육부는 지난 10년간 구호로만 대학구조조정을 외치며 형식적인 대책만을 내놓았다”며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대학 스스로가 입학정원을 줄여 충원율을 관리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대학 스스로가 입학정원을 줄여 충원율을 관리하라고 한다”며 “고등교육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교육부가 유체 이탈 화법으로 대학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융합전공·학과 설치 등을 통해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

국민대 학생들 독립운동 다큐 제작

“연해주서 울리는 고려인의 선율”

고려인 4세 닐루파르 주인공으로
 최재형 기념사업회와 공동 기획
 “조국에 대한 사랑·통일의 꿈 담아”

국민대영화전공 학생들이 학교기업과 공동으로 제작한 고려인 소재 독립운동 다큐멘터리가 곧 선보일 예정이다.

5일 국민대에 따르면, 국민대 영화전공 학생들은 국민대 학교기업 HAL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독립운동 관련 다큐멘터리 ‘로드멜로디’를 제작했다.

로드멜로디는 2020년 순국 100주년을 맞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기획한다큐멘터리다.

고려인 4세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닐루파르 무히디노바(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를 주인공으로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최재형 선생의 역사적 활동지역을 따라가며 선생의 활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클래식 연주와 함께 되새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출을 맡은 이지선(국민대 영화전공 2) 씨는 “국민대도 독립운동가 해공신익희 선생에 의해 설립됐으며 이를 성곡김성근 선생이 민족정신을 가지고 발전시켰다”며 “처음 이 다큐를 기획할



국민대 영화전공 학생들이 다큐멘터리 ‘로드멜로디’를 제작했다. /국민대학교

때는 고려인의 애처로운 삶을 중점적으로 보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삶 속에 스며있는 민족애와 희망을 보았다”고 제작소감을 밝혔다.

제작자문을 맡은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의찬 이사(불곰이엔엠 대표)는 “이 다큐는 고려인 동포를 도움이 필요한 애처로운 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젊은 감성으로 조명한 작품”이라며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조국에 대한 사랑과 희망, 통일에 대한 꿈을 담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공동으로 기획한 최재형기념사업회의 문영숙 이사장은 “고려인은 슬픈 역사의 주인공이지만, 이제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파트너이고 미래의 희망이 되었다”며 “주인공 닐루파르는 최재형기념사업회의

장학생으로 최재형 선생과 오늘날의 고려인,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하나라는 사실을 다큐를 통해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로드 멜로디는 지난해 11월9일 불곰이엔엠이 주최한 ‘제3회 한러청년포럼 All That Russia’ 행사에 초청 상영됐고,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 먹는 불곰’에 소개됐다. 국내에서는 올해 최재형 선생의 순국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대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대 영화전공과 학교기업 HAL 엔터테인먼트는 교육부의 학교기업지원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토대로 독립운동가의 삶을 기리는 콘텐츠 제작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미술 대입 정시 실기고사

응시한 수험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5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0학년도 정시모집 미술 실기고사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과기대 학생들 “베트남 하노이서 한국어 교육했어요”

9박 11일 일정으로 봉사활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재학생 31명이 참여하는 베트남 해외봉사단이 지난 2일 발대식을 갖고 5일~15일까지 9박 11일간 일정으로 하노이 인근 두옹람(Duong Lam)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서울과기대 베트남 해외봉사단은 2018년 시작해 올해 3회째를 맞는다. 이번 봉사단은 한국어 교육과 체육활동, 문화예술 관련 봉사활동과 노후시설 개보수 활동에도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동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는 동시에 정부과건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 31명이 참여하는 베트남 해외봉사단이 지난 2일 발대식을 갖고 5일~15일까지 9박 11일간 일정으로 하노이 인근 두옹람(Duong Lam)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인다. /서울과기대

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류도형 사회봉사단장은 “이번 봉사

활동은 우리 학생들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봉사의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2020년 가장 하고 싶은 알바 브랜드 ‘CGV’

알바몬 남녀 알바생 설문조사
 응답자 76% 브랜드 알바 선호

2020년 알바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아르바이트 브랜드 1위에 ‘CGV’가 꼽혔다. 알바생들은 평소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알바를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알바몬이 최근 남녀 알바생 67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7%는 브랜드 알바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외식, 여가, 카페 등 각 분야 아르바이트 입사지원자가 많은 브랜드 상위

30개 브랜드를 보기로 제시하고 브랜드 알바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들에게 가장 일하고 싶은 브랜드를 복수응답 형식으로 선택하게 한 결과, CGV가 응답률 36.8%로 1위를 차지했다.

CGV에 이어 △교보문고(27.0%) △롯데시네마(26.9%) △GS25(19.5%) △메가박스(16.0%)가 5위권 안에 올랐으며, △CU(15.9%) △투썸플레이스(15.7%) △스타벅스(15.5%) △에버랜드(13.9%) △파리바게뜨(13.2%)가 알바생들이 꼽은 알바하고 싶은 브랜드 상위 10위에 들었다. /한용수 기자

안운주 교수,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장 취임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는 상허생명과학대학 안운주 교수(환경보건과학과·사진)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 제 18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올해 1월부터 2년이다.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는 1985년 한국환경독성학회로 창립한 뒤 2010년 한국환경독성학회와 환경보건포럼이 통합해 환경독성보건학회로 출범했



응하고 특히 화학물질관련 환경문제에 꾸준히 기여해오고 있다.

안 교수는 2004년부터 건국대에서 재직하고 있다. /한용수 기자

임군일 동국대 교수

조직공학재생의학 회장 선출

동국대 재생의공학융합연구원장 임군일 교수(사진)가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이사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됐다. 차기 회장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1년이다. /한용수 기자



2020년 새해에도
 가족의 건강은 베콤씨로!
 한 끼의 완성
베콤·씨[®] 정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NH농협손보, 안산서 2020 사업추진 결의대회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안산에서 '2020년 사업추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앞줄 왼쪽에서 아홉 번째)와 임직원들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안산에서 열린 '2020년 사업추진 결의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



신협중앙회, 시무식 개최 신협중앙회는 지난 3일 대전광역시 중앙회관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신협,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찬 출발을 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장석연 과기2차관, 원도7 지원종료 대응 상황실 방문 장석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원도7 기술지원 종료 대응 종합상황실'을 방문했다. 장 차관은 새로운 악성코드 감염과 해킹 위험 노출 등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장석연 제2차관(오른쪽)이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과 함께 사이버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은, 신임 본부장에 이동환·박경순 선임

한국수출입은행이 신임 본부장 2명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수은은 신임 본부장에 이동환 리스크관리부장과 박경순 청주 지점장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이동환 신임 본부장은 재무관리실장, 울산지점장, PF 지원실장 등을 역임한 리스크관리·여신 전문가로, 리스크관리 본부를 총괄할 예정이다. 박경순 신임 본부장은 인사부장, 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남북협력기금



이동환 신임 본부장 박경순 신임 본부장
과 EDCF 등 기금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남북협력본부 및 인사부를 지휘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박애란 변호사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박애란 변호사(40·사진)를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박애란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며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했다.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현정기자 hik1@



시는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명의 조사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hik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김보라 변호사의 노동법률 읽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개념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는 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이 그 내용이다.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70조 제3항은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행에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이

후 여러 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제58조 제2항) 등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여러 조항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또는 '성실한 협의'를 각 제도의 법정 요건 내지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근로자대표와 관련해서 일부 근로자집단에만 적용되는 제도 도입 시, 예를 들어 일부 직종, 직급에 대해서만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 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대표는 사업 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일부 부서에만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해야 하고,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과반수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또는 협의를 구하는 관련 제도의 내용,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를 위 제도의 영향을 받는 해당 근로자집단의 과반수를 기준으로 선정함이 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근로자대표 선정 시에는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에게 주어지는 대표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자들이 인식한 상태에서 근로자대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로자대표는 1명이나 복수로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선정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향후 논란의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대표 선정과 관련된 문서 등은 보존함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바른

손태승 회장 "글로벌 초일류 금융기관 도약"

우리은행 창립 121주년 기념식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창립 12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랜 기간 우리은행과 희로애락을 같이한 고객과 역대 은행장 12명,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새로운 우리, 미래를 향한 도약'을 주제로 진행됐다. 디지털혁신 주도·글로벌네트워크 확대 등 우리은행의 지난 주요업적을 돌아보고, 2020년 대한민국 대표 리딩뱅크로의 도약이라는 포부를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 이후, 손 회장의 창립기념사를 시작으로 박필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의 축사와 고객 대표 한영재 다이아몬드클럽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손 회장은 창립기념사에서 "우리는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창립 12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손태승(가운데) 우리금융그룹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고객 대표, 역대 은행장 등 주요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행은 121년 역사의 민족 정통은행으로서 고객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며 "고객신뢰 뿐만 아니라 은행 선배들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금융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은행이 돼야 한다"며 우리은행을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초일류 금융기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은 '미래동행 다짐' 세례모니로 마무리됐다. 전·현직 은행장, 고객 및 직원대표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성장하는 우리은행의 미래를 기원하는 '미래동행' 다짐문 낭독과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의 의지를 담은 이벤트로 대미를 장식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인사

- ◆전북 전주시 ◇ 4급 승진 △ 기획조정국 총무과 최병집 △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방원 ◇ 4급 전보 △ 덕진구청장 김형조 △ 신성장경제국장 김병수 △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 맑은물사업본부장 송준상 △ 사회연대지원단장(직제개편) 신계숙 ◇ 5급 승진 △ 기획조정국 조문성 △ 완산구 강재원, 김수정, 배석다 △ 덕진구 최영실, 박원호
- ◆전북 완주군 ◇ 서기관 승진 △ 행정지원과 강평석 ◇ 직위 승진 및 전보(사무관) △ 행정복지국장 직무대리 전영선 △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송양권 △ 사회복지과장 박도희 △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 △ 문화관광과장 박병윤 △ 체육공민과장 강원양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 정재조 △ 삼례읍장 김동준 △ 용진면장 강신영 △ 화산면장 여기현 △ 경천면장 강항임
- 부음
- ▲ 임명복 씨 별세, 안재균(경인방송 보도국 팀장)씨 장인상 = 5일 오전 4시,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7일 오전 6시, 032-460-9404.
- ▲ 허만희(전 연성종합고등학교 교장)씨 별세, 허준혁(사업)·허세연(SRT 근무)씨 부친상, 한임택(특허사무소 근무)씨 장인상 = 4일 오후 4시 30분, 영광종합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7일 오전 10시, 061-350-8044.
- ▲ 장서안 씨 별세, 박종훈(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처장) 씨 부인상 = 4일, 서울아산병원 장

- 례식장 34호, 발인 6일, 02-3010-2294.
- ▲ 김교숙 씨 별세, 이용재(파주시 금촌3동장) 씨 모친상·이선영(파주시 민원봉사과) 씨 조모상, 강보슬(파주시 일자리정책과) 씨 시조모상 = 4일 오전 4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장례식장 4호실(5일 장례식장 변경 예정), 발인 6일 오전 8시, 장지 동화경모공원, 031-940-9370.
- ▲ 조희상씨 별세, 조순복(전남도청 인구청년정책관실 팀장)씨 부친상, 조준호(전남도청 지역계획과 주무관)씨 장인상 = 4일 오전, 영광 옥당장례식장 1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30분, 061-351-1024.
- ▲ 고규철(전 충북 검도회장)씨 별세, 고승중·민중씨 부친상 = 4일 오전 0시 20분,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특호, 발인 6일 오전 7시, 043-279-0144.

고급 식재료, 요리과정 줄인 '편리미엄' HMR 뜬다

(편리함+프리미엄)

GS리테일 'GS더프레시'
8분만에 즐기는 홍합·가리비찜

동원산업 '동원 캐나다 랍스타'
고급 바닷가재 요리 5분만에 조리

앵거스박 'LA 양념갈비'
美 점유율 37% 브랜드제품 사용



가리비찜, 홍합찜

/GS더프레시

2020년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동시에 추구하는 '편리미엄' 트렌트가 떠오르면서 식품업계에서는 가정간편식(HMR) 수요 증가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5일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간편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421억원으로 2015년(1조6823억원) 대비 63% 성장했다. 2018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약 3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에는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편리미엄에 맞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고급 식재료를 사용해, 복잡한 손질과 요리 과정을 줄인 가정간편식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리비, 랍스타 해산물부터 소고기 등 고급화된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제품들이 주목 받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더프레시가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수산물 인기 메뉴로 주목 받고 있다. GS더프레시에 따르면 수산물 매출 성장률은 매년 두 자릿수씩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대비 17.8%의 성장했다. 이에 GS더프레시에서는 지난해 말 국산 재료로 만든 '8분만에 즐기는 홍합찜', '8분만에 즐기는 가리비찜'을 선보였다. 레인지업이 가

능한 용기를 활용해 그냥 뚜껑을 닫고 8분만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간단히 홍합찜이나 가리비찜을 즐길 수 있는 초간편 상품이다. 스틱형 초고추장이 추가로 함께 제공되며, 가격은 각 4980원, 9900원이다. GS더프레시는 '비린내&연기없는 국산 간고등어살'도 최근 선보였다.

동원산업은 캐나다 자연산 랍스타를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동원 캐나다 랍스타'를 출시했다. '동원 캐나다 랍스타'는 캐나다 청정바다에서 잡은 살이 꽉 찬 자연산 바닷가재를 자숙해 담았다. 신선도를 최대한 살리기 위

해, 자숙으로 익힌 바닷가재를 급속냉동한 후 국내로 들여온다. 이 제품은 한번 익혔기 때문에, 가정에서 해동한 후 약 5분 정도만 찌면 고급 바닷가재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동원 캐나다 랍스타'는 이마트에서 판매하며, 가격은 500g 한 팩에 1만5800원이다. 글로벌 수산회사인 동원산업은 최근 연어를 포함해, 다양한 수입수산물 식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수산분야의 대표기업으로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집에서 즐기 어려웠던 수입수산물을 신선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선보이고 있다.

앵거스박은 굵기만 하면 고급스러운 'LA 양념갈비'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출시했다. 풍부한 마블링과 진한 육향이 일품인 블랙앵거스를 주재료로 사용했으며, 달달하고 짭조름한 특제 소스 품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풍부한 맛과 풍미가 특징이다. 앵거스박 '블랙앵거스 양념 LA갈비'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북미산 프리미엄 소고기 브랜드 '엑셀비프' 제품을 사용한다. 이 회사는 국내 미국산 소고기 시장 점유율의



동원 캐나다 랍스타

/동원산업

37%(2018년 5월 미국 PIERS 리포트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 소비 트렌드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편리미엄'은 가성비 시대를 넘어 시간과 노력을 아껴주는 편리성이 프리미엄이 된다는 뜻"이라며 "올해 식품 및 외식 경향을 이끌어갈 키워드로 선정되면서 편리미엄이 전체 소비 트렌드로 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는 일명 '홈콥'을 위한 가정간편식 제품이 더욱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언제 어디서든 보이는 AI 스피커 '살럿홈'

롯데쇼핑 "인터넷쇼핑 원스톱 주문하세요"

충전 배터리 탑재 집안 곳곳서 이용 터치스크린·보이스스피커 동시작동



살럿홈 이미지

/롯데쇼핑

보이스 커머스(Voice-Commerce) 시대를 맞아 롯데쇼핑이 콘텐츠 다각화에 나선다.

6일 롯데쇼핑은 자사 임직원 가족과 VIP 고객을 대상으로 AI 스피커 '살럿홈'을 선보인다. 이는 테스트 베드 시장에서 실제 소비자와 맞닥뜨리며 최적화 과정을 거쳐려는 목적이다.

살럿홈은 롯데쇼핑이 보유한 오프라인 경쟁력을 데이터 통합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에서 출발했다. e커머스 차원에서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터치에서 보이스로 이동하고 있는' 커머스 패러다임을 대비해 준비한 살럿홈은 일반 AI 스피커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디스플레이 기능'이 접목된 것이

피커를 탑재한 것도 강점이다. 현재 살럿홈에서는 롯데백화점을 비롯, 롯데슈퍼와 롯데홈쇼핑 그리고 롯데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모두 주문 및 이용이 가능하다. 터치스크린과 보이스스피커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서도 타 기기와 비교 우위에 있다. 빠르면 상반기 내에 롯데시네마 예매기능도 추가 접목될 예정이다.

여기에 순수 국내 기술로 탄생한 스타트업들의 콘텐츠도 가미됐다.

이러한 '이지에이치엘디'가 제공하는 요리 레시피, '포워드퓨처'가 제공하는 교육 뉴스, '리니어허브'가 개발한 영상통화 서비스(예정) 등이 그렇다.

롯데쇼핑은 손바닥 2개를 맞춰놓은 크기의 이 스피커가 롯데그룹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DT혁신(Digital Transformation)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부산광역시 홈플러스 서면점에서 모델들이 '더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도심형 개인창고 2곳 오픈

부산 등에 '더 스토리지 위드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 첫선을 선보인 도심형 개인 창고 서비스 '더 스토리지 위드 홈플러스(THE STORAGE with Homeplus)'를 부산 서면점과 수원 원천점에 연달아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지난 26일 문을 연 서면점은 약 211㎡(64평) 규모로 구성됐다. 현재까지 선보인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로 기존 선보였던 스몰, 미디엄, 라지 세 가지 사이즈 보관함 외에 처음으로 엑스-라지(약 1.6평) 사이즈까지 마련했다. 이

공간은 침대 매트리스 등 대형 가구 및 가전을 넉넉히 보관할 수 있다.

스몰 16개, 미디엄 24개, 라지 16개, 엑스-라지 3개 등 총 59개의 보관함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 2층 무빙워크 바로 옆에 위치해 물품을 옮기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지난 2일 오픈한 수원 원천점은 약 135㎡(41평) 규모로 이뤄졌으며 1호점인 일산점과 똑같이 스몰, 미디엄, 라지 등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스몰 9개, 미디엄 20개, 라지 10개 등 총 38개의 보관함이 자리잡고 있다.

/신원선 기자

가성비 명절선물 '와인 세트' 인기

이마트, 100억 규모 160여종 판매

가성비 와인 인기에 명절 와인 선물 세트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마트가 2020년 설을 맞아 역대 최대인 100억원 규모의 와인 선물세트 판매에 나선다. 선물세트 상품수도 전년 대비 10% 늘어난 160여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다.

과거 와인은 고가의 주류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가성비 와인들이 와인 시장 대중화를 이끌어내면서 와인 선물 세트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마트는 와인 선물세트 물량을 10% 가량 늘리고 연간 판매 순위 상위 10개 랭크된 인기 와인들을 연중 최저가 수준에 선보이는 등 와인 선물세트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가 이번 설 선물세트로 선보이는 가성비 와인 세트는 총 8종이다.



대표 상품으로 국민와인 '피터르만 바로산 세트(사진)'를 3만9600원에 판매한다. 2019년 이마트 와인 매출 순위 14위였던 인기 호주 와인 '피터르만 바로산 쉬라즈'와 그 후속작으로 지난 10월 새로 선보인 '피터르만 바로산 카베네' 2종을 세트로 구성했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24 "커피 마니아 모여라"… 184종 이벤트

이마트24가 1월 한달 간 커피 매출 활성화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이마트24는 커피 수요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1월 한 달간 즉석커피를 포함한 냉장커피, 캔커피, 파우치 커피 등 총 184종의 상품을 대상으로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커피 마케팅을 통해, 올 한해 커피를 구입하려는 고객에게 가장 먼저

이마트24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커피 마니아들을 위한 초저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마트24는 냉장커피, 캔커피 등 커피 상품 100여종에 대해 1월 한달 간 덤 증정(1+1, 2+1)행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결제 방식에 따라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안지오랩 자체개발 치주질환치료제 임상2상 승인

‘ALH-L1005’ 잇몸·치조골 분해 억제 국내 만성치주염 환자 117명대상 진행

코넥스 상장 바이오 벤처기업인 안지오랩은 자체 개발한 치주질환 치료제 ‘ALH-L1005’ (코드명 AL102-PD T)가 임상2상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지오랩의 만성 치주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ALH-L1005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탐색하기 위한 임상2상 시험을 승인했다.

안지오랩의 ‘ALH-L1005’는 MMP 효소를 저해함으로써 만성치주염에 따른 잇몸과 치조골의 분해를 억제하여 치아 소실을 예방해 준다. 기존의 MMP 효소 저해제로 미국 FDA 승인 받은 유일한 치주질환치료제는 저용량의 항생제인데, ‘ALH-L1005’는 천연물의약품으로써 장기 반복투여 독성시험, 유전독성, 안전성약리 시험에서 고용량에서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

로 알려졌다.

이번 시험은 국내에서 만성치주염 환자 117명을 대상으로 3개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임상 시험 이후 기술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주요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다발성 질병 2위를 차지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는 2010년의 794만 명에서 2018년 1,580만 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치주질환은 악화될 경우 심장 질환, 뇌졸중 위험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안지오랩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천연물의약품 ‘ALS-L1023’을 가지고 습성환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2상과 비알콜성지방간염(NA SH)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2a상을 각각 진행하고 있고, 지난 12월 삼출성 중이염 치료제 임상2a상 IND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는 등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세경 기자



롯데호텔이 전국 16개 호텔에서 ‘2020 설 패키지&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호텔

롯데호텔 설날 맞이 가심비 높은 패키지 선보

웃놀이 세트, 복주머니 등 제공

롯데호텔은 2020년 설 연휴를 맞아 설날 프로모션과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최대 호텔 체인답게 전국 16곳의 호텔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상품이 롯데호텔만의 강점이다.

시그니엘서울 ‘월드타워 스페셜’은 그랜드 디럭스룸 1박과 조식 2인 외에도 시그니엘서울에서 실외로 나가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 아쿠아리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 사뭇대관 중 1곳의 티켓 2매를 함께 제공한다.

롯데호텔제주는 디럭스 테라스 오션룸과 2인 조식, 미니바 1회 무료 제공은 물론 락볼링장 2인 이용권을 포함한 ‘스테이케이션’ 패키지를 30만원부터 제공하며 온라인 예약 시 추가로 1만원이 할인된다.

호텔 내에 위치한 제주 지역 최대 실내 테마파크인 ‘플레이토피아’에서 여유로운 볼링을 만끽할 수 있다.

롯데호텔서울은 ‘채울 컬래버레이션’ 패키지를 선보인다. 슈퍼리움 1박과 전통 수공예 브랜드 ‘채울’의 도라지꽃 텀블러 1개, 9가지 차(茶)를 담은 ‘오설록’ 시크릿 티스토리 1박스로 구성된다.

나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수공예

텀블러와 국내 전통차 재료를 새롭게 블렌딩한 차에서 전통의 현대적 해석을 엿볼 수 있다.

롯데호텔월드는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투숙 가능한 ‘뉴 이어즈 그리팅’ 패키지를 18만5000원부터 선보인다. 이용 고객에게는 디럭스룸 1박과 함께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웃놀이 1세트가 제공된다. 또한 설 패키지 투숙 객실당 복불복 복(福)주머니를 하나씩 증정하여 세시풍속인 세뱃돈을 대신한 호텔 상품권 1/2/3만원권의 랜덤 당첨 기회가 돌아간다.

롯데호텔울산은 디럭스룸 1박과 호텔상품권 5만원권(1박당 제공)으로 구성된 ‘해피 홀리데이’ 패키지를 15만원부터 선보인다. 울산 유일의 5성급 호텔에서 가심비 높은 호캉스를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즐길 수 있다. 투숙객은 지하 1층에 자리한 웰니스존의 스파와 볼링장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롯데호텔부산의 ‘2020 설날’ 패키지는 디럭스룸 1박과 2인 조식, 세계적인 코스메틱 브랜드 이솝의 바디오일을 묶어 판매한다.

롯데시티호텔과 L7호텔은 가성비가 돋보이는 ‘해피 홀리데이’ 패키지를 선보인다. ‘해피 홀리데이’ 패키지는 객실 1박을 비롯해 롯데시네마 관람권 2매, 보드게임 ‘롯데호텔 월드트립’ 세트가 포함된다. /박인용 기자

삼바·셀트리온 K바이오 위상높인다

〈삼성바이오〉

JP 모건 헬스케어 2020

한미약품 이머징 트랙 발표 나서 JW중의 추가 기술제휴 사업논의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에 참여해 글로벌 진출 확대를 노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다음 주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2020’의 초청장을 받았다.

오는 13~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전 세계 45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가장 큰 행사다. 그동안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이 행사를 통해 주요 투자 파트너를 찾고 인수합병, 기술수출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 행사 참여 만으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나란히 메인 세션 발표자로 확정돼, 주요 행사장인 그랜드 볼룸 발표를 확정지었다. 지난해 폴로니얼룸에서 발표했던 셀트리온은 올해 그

랜드 볼룸 발표자로 선정되며, 글로벌 위상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올해 새롭게 출시된 ‘렘시마SC’의 글로벌 출시 계획과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는 4년 연속 메인 발표자로 그랜드 볼룸에 초청되면서 세계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도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갖춘 바이오 위탁생산(CMO)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다만,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김태한 사장이 발표자로 참석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도 행사에 참여한다. 한미약품은 이머징 트랙의 발표자로 나서, 현재 개발 중인 오라클과 톨론티스의 임상 데이터 등을 소개한다. LG화학은 항암제 등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데이터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한양행 역시 레이저티닙 등 기술 이전으로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데이터와 향후 임상 전략을 공개한다.

발표자로 참석하진 않지만, 개별 부

스를 설치하고 일대일 미팅을 통해 투자자와파트너사를 찾아나서는 기업들도 상당수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콘퍼런스 참여해 자체 개발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JW1601)와 통풍치료제(URC101)의 추가 기술제휴 사업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적응증 확대 전략과 개발 현황을 처음 공개한다. 통풍치료제에 대한 선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기술 이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JW중외제약 이성열 대표는 “JP모건과 같은 글로벌 투자 콘퍼런스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데 최적의 행사”라며 “JW1601과 URC102의 연이은 기술수출로 확인된 JW의 연구개발 역량에 대해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에이비엘바이오, 에이치엘비, 티움바이오, 압타바이오, 휴젤, 엔지켐생명과학, 바이오솔루션, 펩트론 등 국내 바이오 벤처들도 행사에 참석해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국민 90% “C형간염 국가검진에 포함해야”

질병관리본부

일반인 C형간염 인지도 34%로 상승 C형간염 예방접종 불가 인지 42%

일반인 10명 중 9명, 의료인 10명 중 8명은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인 1000명과 내과계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12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질병에서 발행하는 ‘주간건강과 질병’ 최근호에

공개됐다.

일반인의 C형간염 인지도는 34%로 2009년 국립암센터 조사에서 1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A형간염(72.8%), B형간염(79.3%) 등 다른 간염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질환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C형간염의 증상(23.5%), 감염경로(29.2%), 치료법(19.8%)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특히 C형간염이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8.3%에 불과했다. C형간염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접종이 불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42%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C형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항체 검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4%였다.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87.6%, 의료인의 78.3%가 긍정적이었다.

질본은 이런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일상생활 중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강화, 국가건강검진 항목 포함 검토 등 C형간염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저염식 고객에 딱!... 현대百, 특화 소금 굴비 세트

현대백화점이 이색 굴비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 기간 프리미엄 소금으로 밑간한 ‘특화 소금 굴비’ 세트 4종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물량은 총 1200세트다. 이 선물세트는 현대백화점이 지난해 추석 명절 선물세트 판매 기간 업계 처음으로 선보인 것으로, 추석에만 준비된 물량(600세트)이 완판된 바 있다. 20cm 이상 10마리(총 중량 1.2kg)로 구성된 상품으로, 판매 가격은 25만원이다.

‘특화 소금 굴비’ 세트는 국내산 소금 3종(자염·죽염·해양심층수 소금)과 프랑스 계란도 소금으로 밑간을 해 특화한 상품이다. 이들 소금은 일반 천일염에 비해 최대 50배가 비싸지만, 고객에게 다양한 맛과 식감을 선보이기 위



특화 소금 굴비 세트를 소개하는 모델들 /연합뉴스

해 개발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보통 굴비는 참조기를 천일염에 절인 후 바닷바람과 햇볕에 말리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햇볕에 말린 갯벌흙을 바닷물로 걸러서 10시간 정도 가마솥에 끓여 거품을 계속 걷어내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자염(kg당 1만3000원) 굴비’는 감칠맛이 강하다. 신선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황토가마에서 구워낸 ‘죽염(kg당 7500원)’으로 밑간을 한 굴비는 대나무 특유의 향이 굴비에 배 생선 비린내를 잡았다.

또한 ‘해양심층수 굴비’는 강원도 고성 연안에서 6km 떨어진 수심 605m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를 안개 상태로 분해한 뒤, 열풍 건조로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생산한 ‘해양심층수 소금(kg당 1만5500원)’을 사용해 짭짤이 기존 천일염 대비 덜해 저염식을 선호하는 고객이 먹기에 알맞다.

프랑스 계란도 소금(kg당 8000원)으로 밑간을 한 굴비는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나, 부럽게 녹는 듯한 식감이 강하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삼성전자, 드림클래스 개최... '나눔의 선순환' '소부장 강소기업'을 바라본 단상

읍·면·도서지역 중학생 1600명 참가

삼성전자가 올 겨울에도 '삼성 드림클래스'를 이어간다.

삼성전자는 3일부터 22일까지 전국 5개 대학에서 읍·면·도서지역 694개 중학교 학생 1600명과 대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2020년 '2020년 삼성 드림클래스 겨울캠프'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는 교육부와 함께 군인과 소방관, 국가유공자 등 자녀 495명을 포함해 선발했다.

드림 클래스는 교육 여건이 부족한 중학생에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멘토로 참가하는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9년차를 맞으며, 멘토 540명 중 72명이 참가 학생이었을 만큼 '나눔의 선순환'도 이뤄지고 있다.

참가한 중학생들은 대학생 멘토와 합숙하며 총 150시간 동안 영어·수학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또, 평소 접하기



삼성 드림클래스 참가자들.

/삼성전자

힘들었던 대학 전공 박람회, 진로 멘토링과 음악회 등 문화체험의 기회도 주어진다.

원통중학교 2학년 권현우 학생은 "병풍 같은 산으로 둘러 쌓여 있는 한적한 마을에 살다 보니 공부에 대한 특별한 자극없이 생활해 왔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이번 캠프를 통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꿈도 찾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중학생 드림클래스에 참가했던 전우택 씨는 "캠프에 참가해 대학생 멘토를 만나면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 올해는 대학생 멘토로서 후배들도 더 큰 꿈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동서발전, 울산 태화강서 새해맞이 환경정화

임직원 40여명 참여... 환경보호 앞장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3일 울산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서 본사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동서발전은 또 지난 2일에는 '새로운 10

년! 청렴한 녹색에너지로 보답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0년도 시무식도 가졌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청렴한 녹색에너지'는 향후 동서발전의 새로운 10년을 상징하는 문구로, 임직원의 청렴한 자세와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강조하는 의미"라며 "친환경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겠다

는 동서발전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동서발전은 전국 5개 사업장에서 '1사 1하천 및 1사 1산 가꾸기' 활동을 통해 발전소 인근 환경보호를 책임지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1000만원 상당의 '탄소상쇄 숲가꾸기' 사업으로 울산대공원 박물관 주변 산지에 1000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운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기자 수첩

김승호 <산업부>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공언한 가운데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5년이 아닌 50년, 더 나아가 100년을 내다보는 안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나 기업에게나 모두 마찬가지다.

과거에도 선진국의 기술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재·부품 등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 내놓았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앞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놀란 정부는 전기·전자, 반도체, 기계 금속,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초 화학 분야에 걸쳐 강소기업 55 곳을 선정한 바 있다. 나머지 45 곳도 올해 추가 공모를 진행, 총 100개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에 1곳당 5년간 최대 182억원이라는 엄청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마케팅, 공정혁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성과를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기업을 찾는 일이다. '소·부·

장'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향후 5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했다더라도 이를 믿고 써줄 수 있는 대기업, 중견기업이 있어야 공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다. 당장은 이들 기업의 제품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하더라도 수요기업은 이를 기다려주는 미덕도 있어야 한다. '기다림'은 결국 우리 강소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반열에 올라서는 시간과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소부장 강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쓰는 수요기업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정책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기회를 잡게 된 강소기업들도 국민들이 낸 혈세의 무게감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5년간 최대 182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기업 1곳당 지원키로 한 만큼 기업들은 빠른 기술 개발과 최고의 품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우리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떠받치는 역할을 하면 그뿐이다.

/bad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6일 (음 12월 12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돌아갈 수 없는 지난날이 그림자. 48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 60년생 적의 적은 동지이니 힘을 모으자. 72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아 비옥한 땅이 된다. 84년생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말	42년생 거절을 하고 마음이 불편하다. 54년생 돈을 빌려 줄때는 적선으로 생각하라. 66년생 나보다 열배 나은 조상님이 자랑스럽다. 78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지 마라. 90년생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은 들뜨고 외롭다.
소	37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비약을 준비. 49년생 물 건너서 소식이 들려오니 마음이 즐겁다. 61년생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처리. 73년생 주변은 평온한데 혼자만 바쁘니 몸이 피곤. 85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리고 온다.	양	43년생 한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라. 55년생 내키지 않은 술자리는 피하자. 67년생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행운을 가져온다. 79년생 숨은 실력을 발휘하고 남의 관심도 받는다. 91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일이 없다.
호랑이	38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5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과감히 포기. 62년생 동료와 협업으로 하던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74년생 의외의 귀인이 옆에서 도움을 준다. 86년생 자기주장만 되풀이하지 마라.	원숭이	44년생 돈거래는 잘 살펴서 하자. 56년생 격한 언행으로 서로가 피해받는다. 68년생 조금씩 일을 그려볼 수 있다. 80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92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토끼	39년생 기억력 증진을 위해 노력을 하라. 51년생 친구에게 양보할 일이 생긴다. 63년생 명예는 높이지만 실속은 별로 없다. 75년생 무리가 따르더라도 꾸준히 하다면 성과는 있다. 87년생 작은 것이라도 진중하게 여기자.	닭	45년생 날씨가 변화무쌍하니 우산을 챙겨라. 57년생 지나친 욕심이 복을 치는 결과. 69년생 쥐똥의 거래가 손조롭다. 81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전진. 93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마음을 알릴 수 있다.
토끼	40년생 하나를 투자해서 열을 얻는 날. 52년생 보석비가 쏟아져도 만족을 모른다. 64년생 꽃은 아름다워도 열매를 가지 못한다. 76년생 변화의 좋은 운이 있으니 현명하게 처신. 88년생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활로를 개척하자.	개	46년생 희망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58년생 재테크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해 보자. 70년생 기대만큼 노력도 많이 해야 한다. 82년생 세상은 내 편이니 기죽지 말고 살자. 94년생 안되는 일에 포기도 용기가 필요하다.
토끼	41년생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겨라. 53년생 남이 차린 밥상에 앉으려니 마음이 불편. 65년생 자식이 재능이 많은데 지출도 크다. 77년생 상사의 뜻에 따르는 것이 부담이 적다. 89년생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저절로 멀어진다.	돼지	47년생 자세를 낮추고 상대를 대하라. 59년생 안부를 물어봐 주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 71년생 문제를 찾을 수 없으니 정답도 없다. 83년생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 95년생 속이 흰히 드러나 보이는 거짓말에 속아준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등등!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1			4		
5				4		3	8	
			8		6			
2	3		6		9	4		
	7		4		2			
		9		1				7
6	4		2				3	
	5		3			2		
					1			

							6	
2								
	6	1	8					4
5			4	2				
6	1			5	9			
8	5		1				1	7
		3						
7	2			6			5	
		6		7	4			1

스도쿠 정답

6	5	1	2	9	7	8	3	4
9	2	7	8	5	1	6	4	3
8	3	6	5	2	1	7	9	4
1	8	9	4	1	6	9	7	5
4	9	2	6	1	7	5	8	3
5	7	8	9	4	1	2	3	6
7	5	1	8	9	6	4	3	2
1	8	4	7	6	9	2	5	3
6	9	7	5	2	1	8	4	3

문제 제공 = **뉴스**



김상회의四季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의 시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나라의 국시(國是)가 유교로 바뀐 조선 시대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신라 시대 때도 여자 임금에 있었다.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의 지위가 동등하다 못해 더 활발했다는 문화적 증거들이 적지 않다. 새벽을 깨우는 닭의 울음소리는 암탉이 아닌 수탉이라고 하니 암탉이 울게 되는 것 자체가 드문 경우이다. 암탉을 여성에 비유하여 여자는 그저 남편을 내조하며 안 가장의 역할만 조용히 하라는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적 사고의 극치라 본다. 더 나아가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는 속담도 있다. 여자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팔자가 세다거나 첫 손님이 여자면 그날은 재수가 없다는 등의 얘기도 있다.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양반이다. 파키스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나라는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가볍게 때려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이 있다는 것이다. 땅이 넓은 인도 역시 지방 곳곳에서는 아직도 신부의 결혼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 학대를 당한다. 억울하게 성폭력을 당해도 오히려 피해자로서 위로받기는커녕 집안의 명예에 막혔다며 남자 가족들에게 명예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난다. 달이나 여러 행성에 우주를 쏘아 보내는 과학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사실 가부장적 사고와 전통 아래서 아버지들이 권위를 내세우지만 의외로 생활력이 약해 가계가 어려운 집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럴 때 우리의 어머니들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젊은 청년들이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들이 과도하며 오히려 역차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단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5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1호

새로 나온 책

지구에 사람이 줄면 과연 절망적일까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의하면 2067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6.5%로 늘어나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45.4%로 쪼그라든다. 인구가 사라지는 사회에 대한 불안한 예측이 무성하지만 실효성 있는 출산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인구 감소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걸까.

책은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관통하며 인구동태와 종의 생존 전략,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경제 변화, 도시와 지방의 인구 격차와 해결 방안, 비혼화의 윤리적 원인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한다.

저출생 현상에 따라 세계 인구는 2100년을 전후로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구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과연 절망적인 일일까. 인구가 감소하면 부족한 인력은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 책은 인구가 줄어들면 환경 수용력과 인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사회 즉, 생물종에 최적화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우치다 다쓰루 외 지음/김영주 옮김/위즈덤하우스

대량화를 추구하는 세계 자본주의 시대가 끝나고 자급자족을 기반으로 한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돈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지금과 달리 이러한 사회에서는 경쟁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책은 국가가 처한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할 때 인구 감소 사회의 미래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96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ki1@

한 권으로 백 권 읽기

다니엘 최 지음/행복우물



극장가를 휩쓸고 있는 '겨울왕국II' 제작을 총괄 지휘한 제니퍼 리 CCO는 성공 비결을 묻는 말에 "어린 시절 책으로 가득한 집에서 살았기 때문이었다"고 답했다. 빌 게이츠는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서습관"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 출간된 모든 도서 중 300종을 엄선해 25개 학문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528쪽. 1만4400원.

밀레니얼은 왜 가난한가

헬렌 레이저 지음/강은지 옮김/아날로그(글판)



지난 한 세기를 통틀어 가장 가난한 세대, 밀레니얼이 등장했다. 겨우 8명이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움켜쥐고 있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계약직 일자리에 내몰리게 된다. 밀레니얼들이 사회주의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무려 자유주의의 수호자나 다름없던 서구에서 말이다. 책은 불평등이 심화될 때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보여준다. 밀레니얼을 위한 마르크스식 사회주의 안내서. 267쪽. 1만5000원.

똥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진지하게

로스 조지 지음/하인해 옮김/카라칼



곧게 닫힌 문 뒤에서만 일어나고 입 밖에 꺼낼 때는 조심스러우며 항상 완곡한 표현 뒤에 숨어 있는 인간의 행위는 무엇일까? 정답은 배변이다. 저널리스트 로스 조지는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고 물을 내렸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똥에 대해 솔직하지 않으면 위생 문제를 논할 수 없고 화장실을 빼놓고선 인류의 평안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 곳곳의 분변의 현장을 탐험하는 책. 480쪽. 1만6800원.



반려동물과 공생하는 아파트·오피스텔 각광

펫코노미 시대

펫주책

반려인 1000만시대.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이른바 '펫팜족'을 위한 맞춤형 공동주택이 늘고 있는 이유다.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에 이웃으로부터 눈총을 받았던 이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반려동물이 이제는 사람의 주거환경까지 바꾸고 있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25.1%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39.2%가 과거에 길러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중 반려동물 양육가구 85.6%는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이라는 말에 동의했다.

◆'반려동물 친화형 공동주택' 건립

그러나 일반 주거공간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사람은 물론 반려동물에게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다. 이웃에게는 소음과 냄새 등으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려견주택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서울 사당동에 건립 중인 '펫 오피스텔'은 이러한 반려인의 고민을 해결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 오피스텔은 총 86가구로 오는 10월 입주한다. 펫 오피스텔은 '반려동물 공생주택'으로 불리며, 오피스텔 전 세대에서 반려견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반려동물 친화형 건물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펫도어'다. 반려견이 화장실 문이 열려 있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설치한 문이 바로 '펫도어'다. 또 건물 내부 바닥재를 미끄럽지 않은 소재로 마감해 반려견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욕실에는 '반려견 전용 샤워기'도 설치된다.

또한 소리에 민감한 반려견을 고려해 소리 대신 불빛으로 알려주는 초인등도 도입된다. 펫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반려동물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 때 '펫버튼'을 눌러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엘

사당동에 '펫 오피스텔' 조성 중 전용 샤워실·엘리베이터 등 설치 교육·체험·캠핑·도그풀 등 펫 친화형 '복합테마파크'도 유기동물센터 등 지자체도 가세

리베이터에 반려동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반려견주택연구소는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펫 전원주택', 중랑구 망우동 '펫 빌라' 등을 시공했다.

◆복합테마파크, 타운하우스 등 증가

테마파크와 타운하우스 등 반려동물 친화형 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한미금융그룹은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 대규모 '반려동물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 길동 역세권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 주택 오피스텔 133호실, 강원도 횡성 펜션(3만9669㎡ 55개 동 150실 규모), 경기도 양평 테마공원(3만8525㎡ 규모), 제주 서귀포 리조트(7457㎡ 4개 동 19실 규모)로 타운을 형성한다.

한미금융그룹은 내년 상반기 서울 길동, 강원도 횡성, 경기도 양평, 제주 서귀포에 주거, 휴양, 체험, 교육 시설을 갖춰 분양한다. 반려동물 전문시설로는 도그런, 도그풀, 교육&체험프로그램, 반려동물 스튜디오 등을 비롯해 다양한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조경 시설, 캠핑 카라반, 글램핑 하우스 등을 각 부동산 콘셉트에 맞게 설치한다.

한미금융그룹은 이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반려동물 전문가, 인테리어 및 시설 전문가, 반려동물&법률 자문단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화성향남 더플라체 운동장마을'은 소음이 적어

반려동물을 키우기 적합한 타운하우스로 주목받고 있다.

단지는 전 세대 모두 넓은 앞마당과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 건물 사이공간에 앞마당과 연계 가능한 중정형 테라스로 계획돼 반려동물이 뛰어놀기 좋고, 소음과 사생활보호에 강하게 설계했다.

◆지자체, 반려동물산업 시장에 '한 수'

지자체도 반려동물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강원도 춘천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또 강릉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견 펜션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대상은 애견 전문 펜션과 애견 동반 가능 펜션이며 춘천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애견 펜션을 모집할 예정이다.

조직화된 애견 펜션은 향후 반려견 동반 물레길 카누, 수상 스포츠 체험 등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하부구조도 탄탄하게 다진다. 우선 반려동물 산업 육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동물산업 활성화 포럼을 개최해 반려동물 산업 발전 방안을 찾고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도 건립한다. 2층 규모의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현재 공사 중인 동물보호센터 옆에 들어설 예정이며 1층에는 교육장, 2층은 카페로 구성한다.

박준영 반려견주택연구소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반려동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진소음 문제 등을 해결해줄 것"이라며 "일반주택과 달라 입주자들이 높은 주거 안정성과 만족도를 느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日·홍콩 막힌 항공사들... 베트남 하늘길 개척 경쟁 치열

근거리 노선 대안으로 빠른 성장세 댐부항공·비엣젯 등越항공사 가세 향한 베트남 관광객 수요는 속세로

대표적 단거리 노선이었던 일본·홍콩에 수요가 줄면서 '베트남'이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는 모습이다.

최근 일본과 홍콩 등 기존 인기 노선이었던 지역에 여행보이콧·시위장기화 등이 잇따르면서 또 다른 단거리 노선인 '베트남'이 여행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 뿐 아니라 베트남 국적의 항공사들도 신규 취항하며 한국 여행객 수요를 적극 공략하고 나섰다.

반면 베트남으로 향하는 한국인 대비 방한하는 베트남 관광객의 규모가 작아 인바운드 시장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최근 베트남 지역에 신규 취항하는 국적 항공사들이 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6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베트남 나트랑으로 가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호찌민과 하노이, 다낭, 푸꾸옥에 이은 아시아나항공의 5번째 베트남 노선이다.

에어부산도 지난 26일부터 부산-나트랑 노선의 부정기편 운항에 나섰다

며 국적 LCC인 에어서울도 지난달 16일 하노이, 18일 나트랑에 취항하며 다낭을 포함해 베트남 노선 3개를 운항 중이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 노선 신규 취항 배경에 대해 "우선 수요가 있어서다. 줄었던 일본 노선의 기재를 베트남 노선으로 돌렸다. 다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며 "요즘에 베트남을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여행하기도 하고 특히 나트랑의 경우 '제2의 다낭'으로 몇 년 전부터 뜨고 있는 도시라 취항을 하게 됐다. 베트남 수요가 요즘 많이 늘고 있는데 공급이 늘면서 수요가 따라오는 것도 있

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노선에 투입했던 기자재들이 여유가 생겨 동남아 쪽으로 노선 다각화 차원에서 돌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베트남을 찾는 한국 여행객들이 늘면서 이를 공략하고자 하는 베트남 국적의 항공사들도 한국 시장에 신규 취항하고 나섰다. 베트남 국적의 댐부항공은 지난해 10월 17일 인천-다낭 노선을 대상으로 첫 정기 국제 노선에 신규 취항했다.

이어 11월에는 인천-나트랑 노선 운항에 나섰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인천-하노이 ▲인천-호찌민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다. 또 다른 베트남

국적 항공사인 비엣젯도 오는 15일 인천-달랏 노선, 16일 인천-견터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한편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 대비 방한하는 베트남 관광객이 적어 인바운드 수요를 늘려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베트남으로 출국한 한국인(33만 9560명) 대비 방한한 베트남인은 4만 3617명으로 규모가 약 7.8배가량 차이난다. 또한 최근 들어 일본과 홍콩 등 근거리 노선에 연일 이슈가 터지면서 수요가 줄자 그 대체 노선으로 베트남이 각광받고 있어 한국인의 베트남행은 더 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베트남 출국자 수는 각각 ▲7월 27.4% ▲8월 25% ▲9월 49.4% 증가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치피라이가 클까? 내 얼굴이 클까?

NEW

치피라이

한국식 파이형 치킨디저트

(요니엔 / 치즈 / 칠리)
시즈닝과 함께 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 200원



 더 크고 매운맛
하버네로 (L)
₩4,300

VS



고소한맛 (S)
₩3,400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간도 판매 지역

장성군민 83% “계속 살겠다”... 만족도 높아

전남 장성군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높은 거주 만족도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장성군이 공개한 ‘2019년 장성군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민의 83.3%는 ‘이주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생활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73.1%가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복지·문화·관광분야’로 나타났으며, 군민의 과반수 이상이 문화예술회관과 체육관, 군립도서관 등의 다양한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도시 브랜드 컬러마케팅인 ‘엘로우시티 장성’과 황룡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 특화 발전 전략인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도 높게 나타났다.

엘로우시티 추진 성과로는 ‘관광객 유입과 경제효과 창출’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축제 중에서는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참여 비율이 70.5%로 가장 높았고, 장성을 대표하는 축제로



유두석 장성군수(앞줄 가운데)와 주민들. /뉴스시스

생각한다는 응답 또한 가장 많았다. 지역경제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200만원 이상 소득 비율이 45.6%로, 2017년(35.4%) 대비 10.2% 상승했다. 출생아 수도 전년 대비 16명 증가한 344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합계출산율은 1.778명으로 2017년(1.641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남겼다. 장성군민의 46.3%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15년 허송세월’ 어등산사업 또 연장

〈관광단지 조성〉

매번 협상 결렬... 광주시 신뢰도 ↓ 낮은 수익성 예상에 사업자 불분명

광주시가 최근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과 협상 결렬로 다시 무산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소득 없이 갈등만 남긴 채 15년을 보내고 앞으로 5년간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최근 사업 기간 만료일을 2019년 12월에서 2024년 12월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 시행자(광주 도시공사)와 토지 이용계획은 그대로 유지됐다. 전체 부지면적 273만6200여㎡, 건축면적 3만6500여㎡, 건축 연면적 14만3800여㎡ 등이다. 시설 지구별 건축 연면적은 공공편의 1800㎡, 숙박 10만3700여㎡, 상가 1만6500여㎡, 운동 오락 1만5700여㎡, 휴양문화 5900여㎡다. 부지 기준으로는 운동 오락 시설이 161만7800여㎡로 가장 넓다. 업체들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결국 접었던 점을 고려하면 달라진 것이 없는 토지이용계획으로는 투자업체를 유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광주시는 2005년 2월부터 사업 기간을 소득 없이 허비한 채 만료일이 닦치자 부랴부랴 기간을 연장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삼능건설, 금광기업(광주 관광 개발), 모아종합건설, 호반건설, 서진건설 등과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상을 이어왔다. 매번 결과는 사업 포기나 협상 결렬이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사업을 중도 포기한 기존 개발업체와 투자금 반환 소송 끝에 229억원 투자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골프장만 운영하는 업체는 골프장 순수익금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을 낳았지만, 광주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한 서진건설과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

담보 성격으로 지급한 48억원 상당 좌수표의 현금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

협약 결렬 책임 소재 공방은 소송으로 비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력이나 협상력 부재로 사업을 그르치고 나서야 후속 대책을 고심하는 광주시를 놓고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것 같다는 냉소도 나온다.

광주시가 행정 신뢰도만 깎아 먹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관광단지 조성을 전제로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제한 상황에서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낮은 수익성 예상에 선뜻 사업자가 나설지도 불분명한 데다가 수익성을 높이려고 상가 시설 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면 중소 상인 등의 피해와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시와 민간이 같이 하는 방법, 민간에 맡기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곡성군은 곡성읍 신월리의 농지 1.1ha를 매입해 관리사무실 1동, 스마트시설하우스 5동을 갖춘 과학영농실증포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곡성군 과학영농실증포 조성... 특화작목 발굴

올해부터 과학영농실증포 운영

곡성군은 곡성읍 신월리의 농지 1.1ha를 매입해 관리사무실 1동, 스마트 시설하우스 5동을 갖춘 과학영농실증포를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곡성군은 과학영농실증포를 지역특화품목 연구와 시범포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해 새로운 특화품목 발굴 및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농가 수준별로 체계적인 실습교육을 지원해 농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보급과 전

직원은 지난 2일 2020년도 시무식을 마치고 새해 첫 업무로 과학영농실증포 현장을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시범포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향후 곡성군은 과학영농실증포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해 농업 관련 연구 시설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일단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미생물배양장 시설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대상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해 귀농인이나 청년창업농업인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전남=김태수 기자

담양 식량산업 종합계획 승인... RPC 통합 순항

〈미국종합처리장〉

중장기적 생산·유통계획 등 군의 염원인 RPC 통합 박차

담양군이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식량작물의 적정 자급률 제고 및 식량생산 다각화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적 생산·가공·유통계획, 투자계획 등이다.

군은 지난 2018년 11월 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RPC 중심의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타작물 전환 계획, 식량작물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계획 등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담양군청

실행계획을 세웠다.

이어 지난해 11월 농식품부에 종합계획 선정요청서를 제출해 3단계에 걸친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승인을 받아 군의 염원인 RPC 통합의 박차를 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식량산업 종합계획 승인에 따

라 군은 향후 5년간 농식품부 연계 지원사업인 들녘경경제 육성사업,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RPC 시설현대화, DSC 시설지원) 등의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공공비축미 우선배정, 정부보급종 공급 우선배정, RPC 비매입자 금우대금리 적용 및 추가자금 배정 등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협 RPC의 통합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 결과 2019년 7월에 RPC 통합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종합계획 승인으로 RPC 통합에 순조로운 향배가 예상된다”며 “승인된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토대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해 담양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전남도, 도로정비 1584억 투입... 상반기 85% 집행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58개 지구 장성 북하~도계 3.5km 올해 마무리

전남도가 올해 도로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는 지역 발전 기틀을 다지고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15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58개 지구, 248km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 계획의 85% 이상을 신속히 집행, 정부의 재정집행 목표치(62%)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도로별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은 7개 지구 46km에 724억 원이 투입된다.

장성 북하~도계 간, 남평~화순 간 등 6개 지구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된다.

신규지구인 해남 북평~북일 간 5.9km는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해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장성 북하~도계 간 3.5km는 올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당 지구가 준공되면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장성호 유원지 연결이 원활해져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51개 지구 202.5km로 860억 원이 들어간다.

31개 지구 113.26km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무안공항 진입도로와 해남 송지~고담 IC 등 2개 지구는 올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강진까지내재, 무안 원동~청룡 2단계 등 2019년 도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업과 서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완성을 위한 신안 장산~자라간 연교, 완도 당목우회도로 등도 착공한다.

그동안 장기간 공사로 주민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무안 일로~시중, 영암 은곡~매월 등 설계 완료 후 미착수한 지구는 ‘선 보상, 후 착공 방침’을 반영키로 했다.

이상훈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도로 이용자의 교통 편의와 물류비용 절감, 주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사업이 조기 개통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상반기까지 사업비의 85% 이상을 신속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7 | 해질 / 17:28

1월 6일 (월)
음력 : 12월 12일

수도권 날씨
0 ~ 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지역별 날씨 (기온/강수량):
연천 -4/4, 동두천 -3/3, 백령도 3/4, 파주 -4/2, 가평 -5/2, 서울 0/4, 양평 -2/4, 인천 1/4, 수원 1/5, 용인 1/5, 평택 -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적정한 용역대가로 도시계획 품질 ↑... 산출기준 마련”

서울시 용역수행 기피 대책 마련

이달 중 표준품셈 기준 수립·배포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 개선

서울시가 도시계획·재생분야의 용역대가 산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업 예산에 맞춘 낮은 용역 대가로 인해 업체들이 서울시의 용역수행을 기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표준품셈 대가 산출 기준’을 수립해 배포한다.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재생 업무분야별 용역 대가 산출 기준을 마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표준품셈이란 재료비, 인건비, 기계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공사의 예정 가격을 쉼하여 정하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3월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에서 적정 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 ▲교통 ▲수자원 조사·계획 ▲정보통신공사감리 ▲건축기계설비 엔지니어링 ▲해양 조사의 6개 분야에서 165종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을 마련해 공표했다.

대부분의 기술용역은 법령에 따라 중앙부처에서 대가 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나 국토계획 등은 객관적인 용역 대가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력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는 도시계획·재생분야의 경우 세출 예산 편성 한도 내에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용역대가를 계산하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표준품셈 대비 낮은 수준의 용역 대가를 적용, 업체들이 서울시의 용역을 맡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시는 “사업 예산에 맞춘 임의 요율 적용으로 낮은 대가를 산정, 용역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며 “또 과업 면적이 상이함에도 용역비를 차등 없이 산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용역 특성상 복잡한 도시형상 등으로 난이도가 높고 창의성이 필요해 요구 수준이 높은데도 적정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아 업체들이 용역수행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서울시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업무특성별 요율(비중)을 적용한 적정 투입 인력수를 산정하는 등 도시계획·재생분야의 용역 대가 기준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용역 계약관리 방식도 손질한다. 우선 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관행을 개선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별도의 제안서와 PPT 작성으로 참여업체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했고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보상은 제도가 부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용역 시행 방침을 세울 때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외에 ‘적격심사에 의한 방식’ 등 과업 특성에 맞는 계약방식을 검토한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 시 입찰 서류를 간소화해 참여업체의 부담을 경감, 입찰 참여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공사·공단 등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에 적정 용역대가를 산정해 반영토록 하는 개선 방안을 통보할 것”이라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때 서울시 대가 기준 미준수 시 요청권을 보완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2020 딥체인지 크리에이터 페스티벌
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딥체인지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에서 어린이들이 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천막 철거비 전액 회수

(2억 6000만원)

우리공화당 1억1000만원 시에 송금 시, 자진 완납에 소송 취하 예정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으로부터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비용 2억6000여만원을 모두 받아냈다. 서울시가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지난해 6월 25일 이후 192일 만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원을 지난 2일 시에 송금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1차 행정대집행 비용 약 1억5000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을 납부한 바 있다. 이로써 총 2억6700여만원의 변상금을 완납하게 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했다. 첫 행정대집행이 있기까지 46일을 버텼고, 대집행 직후 다시 천막을 쳤다.

2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됐던 7월 16



작년 9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 천막 3개동이 설치되어 있다.

/뉴스

일에는 천막을 거둬가면서 “우리가 치고 싶을 때 친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차 대집행을 시행할 수 없게 된 시는 준비과정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분만 당에 청구했다. 우리공화당은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천막 시위를 이어갔다.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우리공화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돈줄이 막힐 위험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대집행 비용을 청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당 계좌에 압류를 걸 움직임이 보이자 미리 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시의 손배소 이후 “행정대집행이 부처법한 집행이므로 집행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

우리공화당의 자진 완납에 따라 시는 당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경기도 5등급 노후경유차 40% 감소

지난 해 16년만에 최대 감소

경기지역에 등록된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지난 한 해 40%가량인 17만여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2004년부터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16년 만에 최대 감소 실적을 보였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5등급 노후 경유차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6만1천919대로 2018년 12월 43만4천628대보다 39.7%인 17만2천713대가 감소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4천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것이 주요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본예산 1천102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천9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조기 폐차 9만8천514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2만191대, 액화석유가스(LPG) 엔진 개조 3대 등 모두 11만8708대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2016~2018년 3년 치 실적을 합친 11만7035대(2016년 3만1186대, 2017년 3만8904대, 2018년 4만6945대)를 웃도는 수치다.

아울러 도민 인식 변화로 경유차 증가 추세가 둔화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경유차 대수는 240만30대로 2018년 239만9774대보다 256대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 217만6000여대, 2017년 229만여대, 2018년 23만9000여대 등 매년 10만대 이상의 경유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경유차 증가세가 크게 꺾인 셈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서울시, 안전신고 우수사례 778건 포상 지급

전문가 심사 거쳐 우수상·장려상 선정

서울시는 지난해 ‘안전신고 포상제’를 운영해 우수사례 778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전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상으로 뽑힌 43명의 시민에게는 20만원, 장려상을 받은 735명에게는 3만원의 보상을 줬다.

2019년 서울시에 접수된 안전신고는 총 13만9114건이었다. 이 중 42%가 불법 주정차에 관한 신고였다. 지난해 4분

기에는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신고 9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외에 허술한 육교 시설물, 고장 난 신호등, 보도 점자블록 위 장애물 등을 신고한 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로·보도블록·시설물 파손 등 생활 속 위험요인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기현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



소화전 주변의 불법 주정차 신고 사례.

/서울시

로도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금융]
신한·KB금융
경영전략 워크숍
05



Life

[산업]
삼성전자 CES2020서
'QLED 8K' 신제품 공개
08



1위 하이난 미션힐스 블랙스톤 코스

바닷가 준비한 해변서 즐기는 황홀한 라운딩

1월, 해외 골프 관광 최적의 날씨
높은 난이도·웅장한 자연 경관 등
일품 해외 골프 코스 10곳 선정

2020년 1월 현재 태국 방콕은 평균 21도, 중국 하이난은 20도, 베트남 남호이안은 연평균 24도로 골프관광과 여행하기에 최고의 날씨다.

해외골프투어 전문여행사 오케이골프투어는 최근 '2020년 베스트 10대 해외골프코스'를 선정했다. 실제 오케이골프투어 담당 임직원들이 2019년 해외출장 45회, 방문 골프장 140곳, 157회 답사 라운드를 다녀왔고, 그 결과 발표한 '2020년 베스트 10대 해외골프코스'는 단순히 그냥 넘어갈 정보만은 아닌것으로 보여진다. 기자도 지난 몇 해 동안 10대골프장 중 3곳이 상을 경험해봤고, 각 국가에서 지정한 골프장 순위에도 상위 랭킹되는 골프장 들이기에 이번 겨울 해외골프 여행객들이 참고하고 눈여겨 볼만한 알짜 정보로 추천한다.

오케이골프투어 윤말용 사장은 "순위선정에 골프장 레이아웃 과 관리상태, 그린스피드, 난이도, 라운드 재미 등 순수하게 골프장 컨디션만 고려했다"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라 해서 재미가 없거나 문제가 있는 곳들은 아니다. 지극히 자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은 한국 스크린골프인구가 390만명으로 늘어났고, 매해 평균 10% 이상 상승하고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만큼 골프가 스포츠·레저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오케이골프투어 선정 '2020년 베스트 10대 골프코스'

- ◆ 1위 미션힐스 블랙스톤 코스(하이난, 중국)
미션힐스 블랙스톤코스는 지금까지 라운드해본 모든 골프장 중에서 단연 최고의 코스다. 뛰어난 레이아웃과 긴 전장, 티박스에 따라 난이도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관리상태 또한 최고다. 자연적으로 기복이 진 지형 때문에 높낮이 차이가 심하며, 용암의 절개를 피하고 웅장한 리치 나무를 보전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자연적인 상태로 코스를 설계했다. 전반 및 후반의 마지막 홀에서 위험과 보상이 함께하는 어렵고 긴 코스(7800야드 이상)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토너먼트 코스 중 하나로 평가된다.
- ◆ 2위 호이아나CC(남호이안, 베트남)
호이아나골프코스는 로버트 트렌드 2세가 설계한 베트남 최고 링크스 코스로 남중국해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건설된 전형적인 링크스 코



2위 호이아나CC.



3위 심천 미션힐스 올라자발코스 15번홀. /오케이골프투어

스다. 장엄한 대자연 그대로의 코스에 큰 기쁨을 얻는 멋진 코스다. 밀도가 촘촘한 제온 조이시이라는 신종종 잔디를 사용해 한국 골퍼들에겐 샷하기 쉬운 부분도 있다.

◆ 3위 미션힐스 올라자발코스(심천, 중국)
미션힐스 올라자발코스는 스페인의 올라자발이 디자인한 코스로 이곳의 특징은 단연 벙커다. 18홀에 무려 150개가 넘는 벙커가 자리를 잡고 있고 15번 홀에는 24개의 벙커가 도사리고 있다. 티박스에서 서면 공을 보내야 할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벙커가 가득하고 난이도가 있지만 고수에게는 그만큼 재미를 선사하는 코스다.

◆ 4위 더 엘스클럽 벨리코스(조호바루, 말레이시아)
더엘스클럽은 벨리코스(18홀)와 오션코스(27홀)로 구성된 45홀 코스로 설계부터 스타일, 난이도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코스다. 서로 전혀 다른 컨셉으로 디자인 되어 더 많은 호평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벨리 코스는 유명 골퍼 비제이싱이 디자인한 작품이다. 벨리코스 아웃코스인 오션코스는 코스 레이아웃과 난이도에서 벨리코스와 오션코스 만큼이나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 5위 파인우드CC(바기오, 필리핀)
파인우드CC는 코스 해발 1500m 고원 깊은 산속에 자리잡은 휴양도시 바기오에 위치하고 연평균 기온이 17도라 시원함이 느껴지는 곳이다. 이곳에 게이 플레이어들이 디자인한 18홀 골프코스가 있다. 대표적인 고원도시 베트남의 달랏을 많이 닮았고 산꼭대기에 빼곡이 들어선 집들이 골프장을 내려다 보고 있는 모습은 마치 이탈리아 친퀘

테레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 6위 소이다오하일랜드CC(잔타부리, 태국)
소이다오하일랜드골프장은 야생 원숭이는 물론 야생 코끼리까지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울창한 정글속에 위치한 4성급 호텔과 그린 스피드가 11피트나 되는 오성급 골프장, 소이다오 하일랜드골프 컨트리클럽이다. 소이다오산 중턱에 전개되는 18홀 코스가 참 아름답다. 맑고 청량한 공기, 안락한 설비, 잘 관리된 페어웨이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샷 하는 느낌은 방콕에서 내시간이 걸려도 많은 골퍼들이 찾는 이유인 듯 하다.

◆ 7위 폴리탄 CC(해릉도, 중국)
중국 폴리(POLY)그룹에서 운영하는 거대한 복합 리조트 단지안에 위치한 18홀코스. 정식명칭은 폴리탄 골프장이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중국의 10대 해변중 하나라는 광저우 은탄 해변에 조성된 멋진 코스다. 잘 관리된 코스와 7100야드가 넘는 긴 전장, 그린은 굴곡이 심한데 9피트 이상의 빠른 스피드로 재미를 더한다. 중급 이상 골퍼실력이라면 몇번이고 반복해서 플레이해도 지루하지 않는 곳이다.

◆ 8위 라차프라바CC(수라타니, 태국)
라차프라바컨트리클럽은 수라타니 공항에서는 65킬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태국 남부 최고 골프장이다. 특히 카오숙국립공원 내 위치해 경관이 무척 아름답다. 적당한 언덕레이션과 블라인드 홀이 긴장감과 재미를 더해주는 멋진 코스다. 약간 고지대(해발 약 400m)에 위치해 있고 열대 우림에서 뿜어내는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라운드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 거대하고 웅장한 라차프라바 맴의 호수가 주변을 감싸고 있어 아름다움 또한 일품인 골프장이다.

◆ 9위 발리 내셔널 골프장(발리, 인도네시아)
발리내셔널CC는 참 재미있다. 빠른 그린 스피드와 절묘한 레이아웃, 아름다운 풍광이 인상적이다. 잘 관리된 코스와 세련되고 친절한 캐디까지 최고 코스 답다. 누사두아 해변 가까이 있어서 바닷가를 따라 준비한 리조트와 빌라에 묵으면서 아름다운 발리를 골프와 즐기기에 참 좋다.

◆ 10위 훗카이도 클래식CC(북해도, 일본)
훗카이도 120여개 골프장중 탑 클래스인 훗카이도 클래식CC는 1989년 잭 니클라우스 설계로 개장한 코스로 북해도 3대 명문 골프장 중한 곳 이다.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한 곳답게 모든 홀 그린 주변에 벙커들을 포진시켜 그린공략에 심리적인 부담을 더한다. 긴 전장과 많은 호수들, 심한 굴곡으로 난이도를 높인 그린의 압권이다.

/이민희 기자 lmh@metroseoul.co.kr

여행 단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35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2021년도 문화관광축제 35개를 최종 지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0-2021년도 35개 문화관광축제는 강릉커피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담양대나무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구치맥페스티벌, 밀양아리랑대축제, 보성다향대축제, 봉화은어축제, 산청한방약초축제,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수원화성문화제, 순창장류축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맛춤사당바우덕이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영암왕인문화축제, 울산옹기축제, 원주다이나믹댄싱카니발, 음성품바축제,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임실N치즈축제, 정남진장흥물축제, 정선아리랑제, 제주들불축제, 진안홍삼축제, 청송사과축제, 추억의총장축제, 춘천마임축제, 통영한산대첩축제, 평창송어축제, 평창효석문화제, 포항국제빛날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횡성한우축제가 선정되었다.

/이민희 기자

비엳젯항공

에어버스 최신기종 수령

베트남 차세대 항공사 비엳젯항공이 지난 31일, 호치민 탄손누트 국제공항을 통해 에어버스 최신 기종(VN-A521, VN-A542) 두 대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엳젯항공은 총 8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게 됐다. VN-A521호는 240 좌석이 장착된 전 세계 세 번째 A321neo ACF기체로, 앞서 두대의 기체도 현재 비엳젯항공이 운항하고 있다. 비엳젯항공은 2019년 말말에 항공기 두 대를 수령하며 오는 설 연휴 기간과 올해 항공편 확장 계획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민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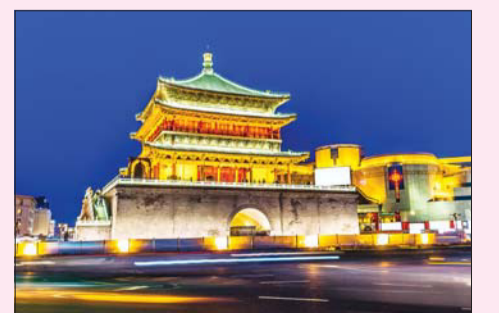
자유투어

중국 서안 관광명소 공개

패키지 직관 여행사 자유투어가 중국 서안에서 꼭 가봐야 할 필수 관광 명소 베스트 5를 소개했다.

서안 베스트 5 명소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의 무덤 진시황릉, 정교하게 빛어진 인형부대 병마용, 역대 황제들의 휴양지 화청지, 서안의 대표적인 민남의 광장 종고루광장,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불상 보관소 대안탑박물관이다. 최근 자유투어는 6대 특식이 포함된 서안 4일 여행상품을 내렸고,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가능하다.

/이민희 기자



중국 서안 민남의광장 종고루광장. /자유투어